



Economy

코스피	2451.58 (0.00)	코스닥	878.48 (0.00)
금리 (연대 3%)	2.19 (-0.03)	환율 (원/달러)	1075.90 (+6.90) (8일)



[부동산]
시세차의 최대 3억
영등포에 뜬 로또단지
‘신길파크자이’
08

“북미회담, 韓증시 재도약 계기 韓 자본-北 인력자원 시너지”

**짐로저스-구성훈 대표
北 경제전망 관련 논의**

“북·미회담이 한국증시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다.”

‘상품투자의 귀재’ 짐로저스 로저홀딩스 회장이 진단한 남·북·미 화해 무드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구성훈 대표와 세계적인 투자대가 짐로저스가 만나 북미회담 후 북한경제개발 전망과 삼성증권의 북한 리서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의 함께 세계 3대 투자대가로 불리는 짐로저스는 과거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설립해 10년간 420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고, 2016년에는 북한 화폐와 채권투자를 언급하는 등 북한 투자와 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왼쪽)와 짐로저스 로저홀딩스 회장이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 후 북한경제개발 전망과 삼성증권의 북한 리서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련된 대표적인 투자 분석가로도 손꼽히고 있다.

짐로저스는 구성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회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한국의 기업과 경제는 새

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담의 사후조치로 북한경제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풍부한 해외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 경우 한국의 자본이 북한의 잘 교육된 젊은 인력 및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면서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요인임에도 아직까지 북한경제나 투자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자료는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삼성증권이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만든 것은 한국의 개인투자자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를 위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민호 기자 kmh0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트럼프, 싱가포르 도착 文 대통령 합류는 없을 듯

북미정상회담 D-1

**金, 에어차이나 항공기 이용
싱가포르총리와 별도면담도**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담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사적 만남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2, 3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가는 대신 한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빌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평양을 출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이용한 에어차이나 항공기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해외 순방 때 사용하는 전용기로, 이날 새벽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 다시 김 위원장 일행을 태우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르 순방시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옛 소련 시절에 만든 ‘일류신(IL)-62M’을 개조한 참매 1호의 경우 평양에서 4700km 거리에 있는 싱가포르까지 재급유 없이 비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단종된 비행기인 데다, 기종이 노후돼 만에 하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아예 중국측으로부터 비행기를 임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별도의 면담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에서 바로 출발해 이날 밤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해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 묵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리셴룽 총리와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직후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번의 기회(on e-time shot)”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마음

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그의 국민, 그 자신, 그 가족들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전 10시다.

당초 하루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접쳐졌던 북미정상회담은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다.

회담은 두 정상이 통역사들만 배석한 채 진행되는 단독회담과, 주요 측근들이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의 영어실력이 뛰어나 트럼프 대통령과 단 둘만의 대화시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엔 13~14일 한국을, 14일에는 중국을 각각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회사채 막힌 기업들, CB·BW 발행 붐물

**공모 회사채 발행 실패 부담
주식관련 사채로 자금 조달**

회사채 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기업들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영구채 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실적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한 가운데 고금리 주식관련 사채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구조조정 국면 심화로 기업들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하다”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이를 인수할 만한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일정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 등을 얹어 투자자 찾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매력에 CB·BW 찬밥 옛말?**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화켈러리아타임월드, 두산건설,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유가증권시장사가 BW 발행 공시를 냈다.

지난 1일 한화켈러리아타임월드는 운영자금과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다. 사채 만기일은

2021년 6월 22일이다.

두산건설은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BW로 조달했다. 수요 흥행도 대박이었다. 지난 8~9일 청약 기간에 두산건설94는 경쟁률 26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예고했다. 작년 3월 1500억원 규모 BW를 발행할 때 청약 경쟁률이 0.03 대 1에 그쳐 흥행에 실패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표면이자율을 연 2.5%에서 4%로 높이고,



발행 규모를 1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줄인 것이 흥행요인이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채권 부도 위험이 거의 사라진 것도 투자 매력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두산건설은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를 냈다. 올해 연간 순이익 흑자 전환도 기대된다. 부채비율은 지난 1분기 기준 2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등 38개사는 CB발행을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CB를 발행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795억

원, 제백신과 동양네트웍스, 리드, 에이프로젠KIC 등이 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481억원 규모의 사모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 **코스닥벤처펀드 덕분에 메자닌 투자 ↑**

기업들이 주식관련 사채시장에 눈을 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융합이 부진한 건설, 조선 기업은 사채 발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얘기다.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평판 위험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 회사채 발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사모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면 주식관련 발행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사채 조달 형편이 나은 편이다.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금리 상승→투자 어려움→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사모사채 시장에서도 찬밥신세다.

/김민호 기자

5월 취업자 33만명 증가... 13개월만에 최대

고용부 ‘5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개월 간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상황 개선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8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313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만2000명(2.6%) 증가했다. 이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만7000명(2.4%) 증가한 것에 이어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지난달 피보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피보험자 증가 규모는 31만7000명에 달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상담하는 로봇’ 도입경쟁... 은행 ‘콜센터’ 역사속으로

(챗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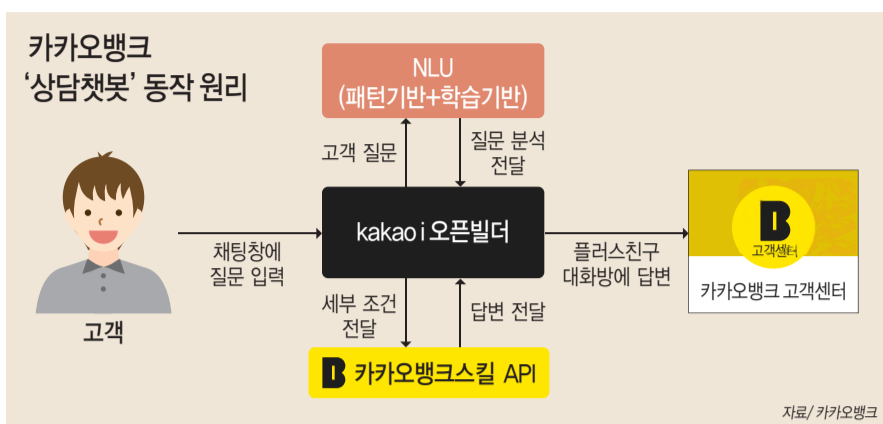
우리銀 ‘위비봇’ 하나銀 ‘핀고’ 등 금융권 잇따라 챗봇 서비스 선배 인터넷전문은행도 속속 준비나서 24시간 고객응대 비용 절감 기대

은행권의 디지털뱅크 경쟁이 연이은 ‘챗봇(chat-bot)’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고 있다. 24시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디지털뱅크의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개별 은행마다 수 백 명의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 콜센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이유에서다.

챗봇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떨어진다. 그러나 데이터가 누적되고 학습이 거듭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챗봇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챗봇 서비스로는 우리은행의 ‘위비봇’을 비롯해 KEB하나은행의 ‘핀고’, NH농협은행 ‘금융봇’, 신한은행 ‘솔메이트’ 등이 나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이달 중 ‘상담챗봇’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뱅크는 음성으로 답변이 가능한 ‘콜봇’을 개발 중이다.

챗봇이란 ‘수다를 떨다(chat)’와 ‘로봇(robot)’의 합성어다. 사람 대신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고객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측면에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은행 입장에서 모바일 뱅킹 등 24시간 가능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챗봇 서비스를 적극 도입케 하는 요인이다. 지점을 없앤 인터넷전문은행마저도 콜센터에는 수 백 명의 인력을 채용하며 공을 들여야 했다.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 익숙한 고객 역시 챗봇 서비스는 기존 콜센터 안내보다 편하게 느껴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자체 금융플랫폼에서 챗봇 상담이 가능하며,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

챗봇은 지금 수준에서는 단순한 질문, 절차 등을 제외한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나 단순 안내만 제대로 처리해도 콜센터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이상희카카오뱅크태스크포스(TF)장



NH농협은행은 올 하반기에 시 기반 상담서비스인 ‘챗봇서비스’를 도입해 진정한 대화형뱅킹을 구현할 예정이다.

은 “작년 7월 영업시작 이후 쌓인 고객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반복적인 안내성 문의가 전체 상담의 80%를 차지했다”며 “상담챗봇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챗봇의 상담 처리수준을 감안해 상담직원이 활용토록 하고 있다. ‘특상담’을 할때 고객 문의에 대해 챗봇이

추천 답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상담직원이 이 중 최적의 답변을 선택해 내보내거나 직접 입력으로 부연설명하는 방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단 순문답형 챗봇 엔진을 자연어 처리·분석,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상황인지형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 강화된 상황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음성상담까지 가능케 하는 ‘콜봇’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용관KDB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은 24시간 고객응대에 따른 비용을 챗봇 도입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고객 응대와 같은 단순업무 뿐만 아니라 로보 어드바이저와 결합해 자산관리 등 핵심 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금융 기관의 수익성 및 인력운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하나은행의 핀고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상품까지 비교해서 안내해주며, 향후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JY, 이번엔 홍콩·일본서 電裝 협력 논의

(전자장비)

日 우시오전기·야자키 등 만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홍콩과 일본 출장을 마무리하고 10일 귀국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미팅 및 해외시장 점검 등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국한 뒤 열흘간의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3월 유럽과 캐나다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과 일본을, 이번에는 홍콩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에 우시오전기, 야자키 등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전장 사업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 설립된 특수광원 전문회사인 우시오 전기는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용 노광 램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직원수만 5800여명에 달하고 지난해 1조7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해외 출장길에서 귀국하는 모습.

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최근에는 광학을 이용한 의료기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에 광원 램프 등을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의 창업자 우시오 지로 회장은 2007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견희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우시오 회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형 히로노부의 장인으로, 일본 재계의 유력 인사로 꼽힌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야자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다. 자동차용 전원과 통신 케이블, 전방표시장치(HUD) 등 전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이번 해외 출장도 신성장동력 발굴 행보의 일환으로 여겨진다”면서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 세계적인 전장·오디오 전문기업인 미국 하만(Harman) 인수를 주도하는 등 자동차 전장 분야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보고 사업 확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2016년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작품으로 하만 인수를 성사시킨 만큼 전장 부문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전세계 전장 산업이 2025년 1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 M&A 등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에서 시민들과 취재진들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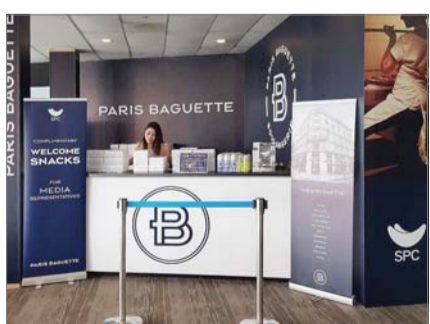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 ‘파리바게뜨’

SPC그룹, 13일까지 부스 운영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의 시선이 회담지 싱가포르에 쏠린 가운데 현지 프레스센터에 파리바게뜨 부스가 차려졌다.

SPC그룹은 북미정상회담 취재기간인 이날부터 13일까지 4일간 각국 기자들이 상주하는 ‘F1 피트(Pit) 빌딩’ 프레스센터에 파리바게뜨 부스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SPC는 “이곳에서는 샌드위치, 구유과자, 생수 등으로 이뤄진 스낵 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프레스센터에 설치된 식음료 부스 가운데 싱가포르 브랜드가 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파리바게뜨 부스가 차려졌다.

닌 외국 브랜드로는 파리바게뜨가 유일하게 설치됐다”고 소개했다.

SPC는 앞서 4월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도 식음료 부스를 운영한 바 있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으며, 이 같은 경험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부스를 차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SPC는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식음료 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며 “당시 내외신 취재진이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싱가포르 현지 파리바게뜨 부스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3천 명 이상의 취재진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PC는 이에 따라 제품 세트 4000여 개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2012년 9월 현지 핵심 상권 가운데 하나인 오차드로드에 ‘파리바게뜨 위즈마점’이 오픈한 바 있다. 현재 창이국제공항 내 4개점을 포함해 총 8개 매장이 손님을 맞고 있다.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서 북한 경호원이 경찰과 김정은 위원장 및 준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지역과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성공회담 기원하듯 60문 대포에 꽃다발, 곳곳 올리브 장식

‘세기의 담판’ 앞둔 센토사섬 표정

‘회담장’ 카펠라호텔, 외부인 통제 양국정상 숙소엔 보안검색대 설치

6·12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 세계가 싱가포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기의 담판’이 될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질 센토사 섬은 회담의 성공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의 염원을 담은 듯 ‘평화의 섬’이 됐다.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 회동’을 갖는 센토사 섬의 서쪽 끝 실로소 요새에는 60문의 대포 포구마다 꽃다발이 즐비하다.

또한 평화를 의미하는 올리브 장식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 요새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해안포대로 쓰인 후 1974년 군사박물관으로 전환돼 관광지가 됐다. 이번 회담을 위한 마련된 꽃 장식들은 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9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서쪽 끝 실로소 요새의 포구에 꽃다발이 꽂혀 있다. /연합뉴스

이후인오는 13일까지 놓여질 계획이다. 회담장으로 쓰일 카펠라호텔은 붉은색 지붕의 5성급 호텔로 행사준비 막바지에 이르며 외부인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호텔 안에는 양국 정상이가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솔길들도 여럿 보인다.

양 정상이 회담기간 동안 묵는 숙소들은 센토사섬에서 북쪽으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샹그릴라 호텔에는 10일 새벽 성

조기가 싱가포르 국가와 나란히 게양됐다. 호텔 안팎의 경비는 다소 강화됐으며, 보안 검색대도 처음으로 설치됐다.

호텔 연회장인 아일랜드 볼룸은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곳에 차담막이 설치돼 이번 회담과 관련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도 방탄 경호단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

이 눈에 띄었고, 검문검색도 진행중이다. 호텔 정면과 차량 통행로 등도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리센 룡 총리가 김 위원장을 10일, 트럼프 대통령을 11일에 만난다고 발표했다. 면담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 싱가포르 총리나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날 때 사용하는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는 일정 외에 11일까지 각자 휴식을 취하며 회담 전략을 가다듬고 12일 오전 역사적인 회동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9일(현지시간)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도중 캐나다를 떠나 싱가포르로 향했다. 그는 트위터에 “북한과 세계를 위해 진실로 멋진 결과를 성취할 기회를 갖게된 싱가포르로 가는 중이다”고 글을 올렸다.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이번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BBC는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한중일 3개국 시선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은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과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은 어떤 협상에서도 전략적 이익을 버리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북통일과 양국 경계의 미군주둔이 중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이번 회담을 통해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한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기의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싱가포르에선 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북한기자가 나오자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中 이외 서방무대 전격 첫 선 자본주의 이해, 선대와 달라

김정은, 국제무대 화려한 데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에 첫발을 내딛는 길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오는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나들이는 이렇듯 중국 방문 두 차례 뿐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을 다녀갔지만, 서방 무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단순한 데뷔가 아니다. 지난 70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적국’ 미국의 최고지도자와 화해의 손을 잡을지 결단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이 물려준 ‘가난에 찌든’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강한 욕망과 ‘체제 수호의 강력한 보검’으로 내세웠던 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다. 전자를 취하고 후자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대장정에 나선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10대 중반에 최고의 선진국 스위스의 베른에서 평범한 공립 학교에 다니면서 선진 문물을 익혔다.

스위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사 등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다양한 수업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10대 김정은 위원장의 두뇌에 고스란히 입력됐다.

황태자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외국인으로 미국과 서방에 대한 교육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았던 스위스 시절의 교육은 그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정치 행보에 상당히 녹아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내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다”는 열망을 표출해왔다. 2014년 시장의 완전 허용이라는 과격적 조치를 한 것도 마식령스키장, 원산 관광지 건설 등도 스위스에서 경험이 영향을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받은 자본주의 교육은 그에게 정치적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주민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늘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성장에 청년시절의 프랑스 유학이 지대한 영향을 준 것과 유사하다.

두 차례의 남북 및 북중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의한 것으로, 그가 주도적으로 정세 변화를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결국,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과격적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의 결단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담판으로 이어질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진희 기자

www.koreanair.com

2019년 6월
세계 하늘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세계 항공업계의 UN총회인 IATA 연차총회를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항공이 유치하였습니다

75 IATA ANNUAL GENERAL MEETING WORLD OF TRANSPORT NEWS SEOUL 2-4 JUNE 2019

75차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연차총회 일자: 2019년 6월 2일(일)~4일(화)
세계 290여개 항공사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세계 항공 발전을 논의하는 IATA 연차총회를 대한항공이 정성으로 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의 위상을 높여나갔습니다

KOREAN AIR

유가 상승·운임 하락 ‘이중고’... 해운업계 실적 ‘빨간불’

현대상선, 실적 12분기 연속 적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노선 확대 등으로 수익개선 기대

국내 해운업계의 실적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해운업체 11개 선사의 매출총액은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2조7560억원에 머물렀고 영업이익 합계는 지난해 374억원에서 올해 -513억원으로 적자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상선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영업적자 17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9.6% 커졌다. 12분기 연속 적자다. 매출액은 1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757억원으로 전년 동기 73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흥아해운 동방(해운부문) 역시 영업이익이 확대된 성적을 받았고 SK해운과 풀



국내 11개 선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지난해 374억원에서 올해 -513억원으로 적자전환하면서 국내 해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연합뉴스

라리스윙프·대한해운·대한상선·대림코퍼레이션(해운물류부문)·대우로지스틱스(해운부문)도 영업이익의 감소를 맞았다.

반면 외국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 라인의 올해 1분기 해상운송 사업부문은 매출액 68억1000만달러(약 7조3800억원),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이익(EBITD

A)는 4억9200만달러(약 5300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1년 전의 49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매출액은 37.6% 늘었다.

독일 해운사 하파크로이트는 올해 1분기 6610만달러(약 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1분기 800만달러에서 726.2% 폭증했다. 이 선사는 범

아랍선사 UASC 인수와 물량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손실 확대가 1분기 연료유 평균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19% 상승한 314달러를 기록하는 등 원가 상승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선대들이 1년간 소모하는 연료유 양은 3억5000만수준이다. 연료비가 1달러만 상승해도 3억5000만달러의 원가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 가격은 지난달 18일 기준 t당 456.5달러(싱가포르항 기준)로,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유가는 오르는데 운임은 하락하면서 해운업계의 답답함은 커졌다. 현대상선도 1분기 영업손실 확대 배경에 대해 운임 약세와 연료유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통상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다. 선박 공급 증가 및 운임 약세, 연료유 가격상승 등이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4일 총 3조원대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의 건조

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맡겨달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해운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0년까지 2만3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확보해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투입하고, 1만4000TEU급 8척을 미주 동안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만3000TEU급 7척과 5척을 각각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1만4000TEU급 8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하기로 했다. 2만3000TEU급 선박은 2020년 2분기, 1만4000TEU급 선박은 2021년 2분기에 각각 인도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2분기부터 계절적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운임 및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화주 확대 및 부산항 HPNT 터미널 운영권 확보로 인한 항만효율인하에 따른 수익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SK 경영진, 美서 미래 핵심인재 발굴 나서

2018 SK 글로벌 포럼 개최

SK 최고경영진들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보탬 글로벌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SK는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와 첨단산업 분야의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을 위해 지난 7일과 9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2018 SK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포럼은 미국에서 에너지·화학,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바이오 등 SK의 핵심 성장동력 분야의 인재를 초청해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첨단기술과 글로벌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SK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석·박사급 인재를 물론, 미국 내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과

학자, 엔지니어, 사업개발담당 등 리더급 인재들이 초청 대상이다.

SK는 2012년부터 7년째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뉴(New) SK' 경영 전략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다고 SK는 전했다.

또 이번 포럼에선 현지 인재들이 '자율주행' 등 본인 전공 분야의 연구 성과나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올해 포럼에는 SK 측에서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수펙스추진협의회 서진우 인재육성위원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에서는 글로벌 기업, 연구소,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한인 과학자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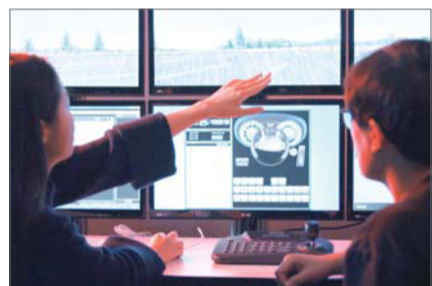
자동차 미래는 SW... 모비스 R&D 강화

14억 투입해 'SW 아카데미' 구축
연구원 400여 명 직무 교육 가능

현대모비스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기술을 견인할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용인 기술연구소에 총 14억원을 들여 4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소프트웨어 직무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모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회사가 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에 버금가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자동차 한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에서 2030년이면 3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의 주도권이 차로 넘어가면서 외부 해킹으로부터 차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



현대모비스 연구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도로환경을 반영한 인포테인먼트 제품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분석하고 있다.

고, 극한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소프트웨어 성능이 보장돼야 한다. 세계적 자동차·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센서와 로직(인지·판단·제어) 등 자율주행에 특화된 융합 소프트웨어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빅데이터 활용, 영상 인식, 센서 제어를 비롯해 통신 기술 과정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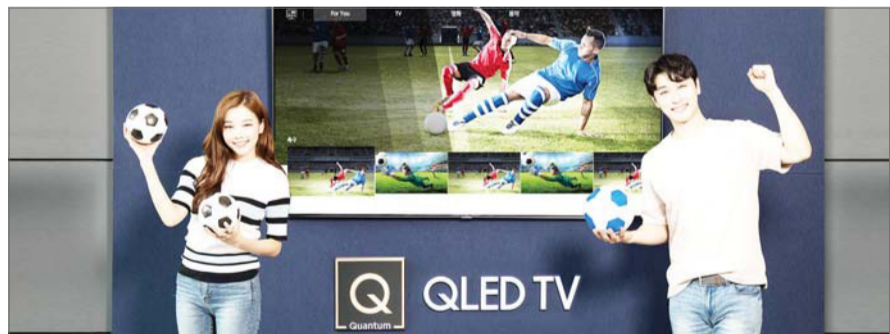
또 현대모비스 연구원들은 코딩이나 알고리즘 설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작동하는 원리를 비롯한 기계구조학도 배우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관련 R&D 인력도 대폭 충원한다. 현재 800여 명 수준인 국내 기술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설계 인원은 2025년까지 5배 이상인 약 4000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통해 전 연구원들을 스스로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 설계인력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인도연구소와 베트남 분소 소프트웨어 전문 글로벌 연구거점으로 확대·운영한다. 이들 연구소는 IT·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들이 풍부한 곳에 있다. 설립 11년째인 인도연구소는 멀티미디어 제품 소프트웨어 설계 업무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연구소를 통해 내년 말까지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인 '엠빌리' 20대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실제 도로환경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양성준 기자 ysw@



삼성 QLED TV에 AI기반 축구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QLED TV의 축구 큐레이션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QLED TV, AI가 축구 채널 추천

삼성전자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QLED TV를 포함해 2018년형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축구 관련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추천해 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TV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유니버설 가이드' 안에 '축구(World Soccer)' 탭을 추가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월드 사커'는 축구 방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상파 외에도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위성방송 ▲케이블 등 모든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한다. 거주 국가의 축구 대표팀 경기가 방영되고 있는 채널만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AI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다.

간으로 분석해 지상파 외에도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위성방송 ▲케이블 등 모든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한다. 거주 국가의 축구 대표팀 경기가 방영되고 있는 채널만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AI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다.

삼성 QLED TV 사용자들은 지능형 어시스턴트인 '빅스비'를 통해 "한국팀 스포츠 채널 찾아줘"와 같은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스포츠 경기 시청이 가능하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SKT-中 DJI, 드론영상 관제 솔루션 '맞손'

SK텔레콤이 세계 1위 드론 제조사인 중국의 DJI와 손잡고 드론 촬영 영상을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저변 확대에 나선다.

1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자사 '라이브 캐스터' 기반의 고성능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인코더·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서버 소프트웨어 등 관련 솔루션을 DJI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DJI 제품으로 촬영한 영상의 전송 지연율을 최소화해 고화질(HD)급 화질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은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의 통털에불루션(LTE) 이동통신망 기반 고화질 영상 관제 솔루션은 스마

트폰의 카메라 및 통신 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다양한 촬영장비에 스트리밍 인코더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화질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DJI의 드론 및 촬영장비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사는 DJI 드론 조종 앱인 'DJI Go'와 SK텔레콤의 스트리밍 앱 '라이브 캐스터 스마트'의 기능 통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더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영상수신·관제 서버 솔루션인 'T 라이브 스튜디오'와 DJI의 드론 관제 솔루션 'DJI 플라이트 허브'의 기능을 통합 및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최낙훈 IoT사업지원그룹장(왼쪽)과 DJI 안 가스파릭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 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이번 협약으로 출시될 실시간 영상관제 솔루션은 ▲농업·물류·탐사 등에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 영역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시설물 영상관제 영역 ▲방송중계·유튜브·페이스북 라이브 등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영역 등에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애플 '아이폰 탑재부품' 주문량 20% 줄여 주문

애플이 올해 가을 선보일 새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될 부품을 전년보다 20% 줄여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급락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들은 일본 니혼게이지이신문을 인용해 애플의 부품 주문량 축소를 전했다.

니혼게이지이신문은 아이폰 부품 공급체인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애플은 다가오는 아이폰에 대한 부품 주문에 있어 꽤 보수적"이라며 "특히 올해 신모델 3종에 국한하면 작년 주문량보다 최대 20%나 줄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3주년 기념작 아이폰 X와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약 1억 대 분의 dL부품공급을 주문한 바 있다. 이것과 비교하면 약 8000만 대 분 수준으로 공급량을 줄였다고 해석된다. 공급량을 줄인 핵심 부품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전자, G7 씽큐부터 X4까지 차원이 다른 사후지원

움직이는 'AR 스티커' 3주만에 업그레이드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부터 실속형 'LG X4'까지 다양한 제품에 신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차원이 다른 사후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LG G7 씽큐에 새로운 '증강현실(AR) 스티커' 카메라 모드를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작했다. 출시한 지 3주 만이다.

새로 추가되는 AR 스티커는 움직이는 캐릭터나 글씨 등 3차원으로 된 AR 스티커를 사진이나 영상에 삽입해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더욱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구글의 증강현실 기술로, 구글 자체 스마트폰인 '픽셀'을 제외하고 전세계 스마트폰 중 LG G7 씽큐에 최초로 탑재된다.

AR 스티커를 활용하면 내 책상 위에서 가상현실로 만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공



LG전자가 LG G7 ThinQ에 새로운 '증강현실(AR) 스티커' 카메라 모드를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작했다. /LG전자

연을 펼치고, 친구 옆에 가상의 3차원 브로콜리가 춤추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재미 있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LG G7 씽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실시한다. 카메라와 오디오, UX에 이르는 제품 전반의 성능을 개선한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들은 LG G7 씽큐를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1분기에 출시한 LG X4와 LG X4+에 최신 카메라 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도 시작했다. LG X4는 합리적인 가격에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LG 페이, FM 라디오 등 차별화된 편의 기능을 담아 호평 받고 있는 실속형 스마트폰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셀카를 찍을 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인물에만 포커스가 맞춰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전면 아웃포커스' ▲3초마다 1장씩 최대 20장까지 연속 촬영해 바로 GIF 애니메이션 파일로 만들어 주는 '플래시 점프 컷' ▲타이머 촬영을 할 때 언제 찍히는지 알 수 있도록 플래시 불빛으로 알려주는 '타이머 플래시' 등 LG G7 씽큐에 탑재된 새로운 카메라 기능을 LG X4 시리즈에 추가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현대건설기계, 인도 굴삭기 공장 증설

현대건설기계가 중국에 이어 인도 굴삭기공장 증설에 나서며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인도의 굴삭기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인도 푸네공장의 생산능력을 연간 1만대 규모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재 인도공장은 8~34톤급 중·소형 굴삭기를 연간 6000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공장 증설을 통해 인도에서 미니굴삭기, 대형 굴삭기까지 판매모형을 다양화하고, 영업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병행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MF에 따르면 인도는 모디 정부의 친시장, 고성장 경제개발정책이 가시화되면서, 2018년 7.4%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굴삭기 판매 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5월 인도에서 1천700여대의 굴삭기를 판매한 현대건설기계는



현대건설기계 인도법인 항공 전경.

올해 동기간 약 35% 늘어난 2천300여대의 장비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2위(18.1%)를 기록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8년 11월 국내 건설기계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인도 시장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이후, 8년 만인 지난 2016년 현지 업체들을 제치고 인도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올해 약 3조3000억원의 매출 목표를 계획한 현대건설기계는 오는 2023년까지 인도시장에서 매출 1조원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준 기자 ysw@

LG CNS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사업 수주

LG CNS가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 국내최초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LG CNS가 지난 5월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출시한 이후 수주한 첫 프로젝트다.

LG CNS는 6월 중 한국조폐공사와 본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LG CNS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인 'LG G-클라우드'에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결합한 모델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서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확장성이 높다.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도 LG G-클라우드에만 접속하면 이 플랫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

관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이번 오픈 플랫폼은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서비스 ▲모바일 인증 서비스 ▲문서 인증 서비스 등 3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의 데이터의 진본성 여부를 보증하는 '앵커링' 서비스를 제공해 블록체인 '데이터 보증의 공공 허브'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앵커링은 외부 블록체인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번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앵커링을 통해 외부 블록체인 플랫폼 참여자는 자신의 블록체인으로 1차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2차로는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성에는 문제가 없다. /구서윤 기자

남의 편

남의편

여보~ 나 결심했어! 께

태어날 아가를 위해 담배 끊을거야

술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실거고 뱃살도 빼야지

어떻게 생각해? ^^

오후 3:07

남의편

여보...?

오후 3:11

좀 더 스마트한 플랜 없어?

오후 3:11

인생에 진짜 스마트한 플랜을 짜야할 때

(무)교보스마트플랜종신보험 보종비용부과형 저해지환급형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는 더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무)교보스마트플랜종신보험(보종비용부과형, 저해지환급형)을 만나보세요

합리적 보험료 일반형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춥니다(저해지환급형 가입시)

똑똑한 혜택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는 세형나이 계약해당일에 장기유지보너스를 더해 드립니다

든든한 가족생활 가족사랑의 마음을 담아 유고 시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노후에 생활자금 전환으로 사망보장을 줄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기본형플러스가입시)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게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802-23 상품지원팀(2018.02.2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789호(2018.02.27)

KYOBO
교보생명

사라지는 보험사 고객센터, 민원처리는 어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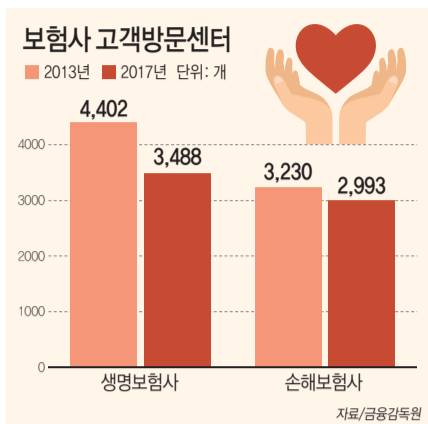
IFRS17 앞두고 인력·점포 감축
“고객수용 센터 미미하다” 지적

최근 보험사들이 경영환경 악화 속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객센터를 줄이고 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이 고객 응대 등 형식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의 고객센터 수는 총 3488개로 전년 대비 324개(8.49%)나 줄었다.

지난 2013년 4402개에 달했던 생보사 고객센터 수는 2014년 4002개, 2015년 3855개, 2016년 3812개 등으로 매년 감



소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사 역시 지난 2013년 3230개에서 2014년 3157개, 2015년 3104개, 2016년 3038개, 지난해 2993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국내 보험사 개인고

객 건수(생명보험사 기준)는 7785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수용할 고객센터가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내방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등 보험계약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객센터 또는 지급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 수는 극히 적으며 그나마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고객에게만 서비스 혜택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현재 보험 소비자가 직접 찾아 보험계약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생보사 현장 고객센터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영악화 및 오는 2021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지급여력(RBC)비율이 급격히 악화된 보험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력감축 및 점포 축소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흥국생명, KDB생명 등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점포축소를 시행했다.

IBK연금보험, 라이나생명, 현대라이프 등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방문고객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소비가 내방할 수 있는 거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서비스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최소 20년 이상 장기유지 고객에 대한 보험계약 관리서비스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의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이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방문센터를 통한 계약유지관리 및 민원처리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방문고객센터가 현재와 같이 대도시 중심 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고령고객의 경우 고객센터 방문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신청, 축하금 수령, 생존급부지급 등 고객창구 활용이 필요한 고객에게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의 서비스 횡포라 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선의의 보험 소비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객서비스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이길성 KB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 상무(오른쪽)가 마이클 청(Michael Cheung) SWIFT 북아시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해외송금 당일수취·진행현황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KB GPI 해외송금’ 출시

KB국민은행은 ‘KB GPI(Global Payments Innovation)프리미엄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당일 수취가 가능한 빠른 송금으로 고객이 송금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송금보다 신속한 처리속도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율변동 리스크와 비즈니스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수출입 기업의 경우 빠른 대금 결제로 인해 물품의 판매 및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고객도 송금의 진행 현황을 직접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의 송금 문의 및 대금 미수취 주장 등에 대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와의 불필요한 분쟁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KB GPI 해외송금 서비스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프리미엄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며,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은행聯, 블록체인 인증 ‘뱅크사인’ 도입

은행연합회는 오는 7월부터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은행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본격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공개키(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인증서비스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을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 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



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특징도 있다.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위해 사원은행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車 유리막코팅 비용 허위 보험청구 꼼짝마!

정비업체 등 45곳 보험금 가로채
의심사례 4135건·10억원 규모

보험사에 자동차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가로챈 유리막코팅업체, 정비업체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4135건으로 10억원 규모다. 혐의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 한 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24만원 수준이며, 최대 160만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 유리막코팅은 차량의 스크래치, 부식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일련번호, 시공일자 등의 위·변조나 허위발급이 용이하고, 보험사가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보험사기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혐의업체는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대물보험금 131만원을 타냈다. 기재된 시공일자가 차량의 최초 등록일 이전이어서 탈미가 잡혔다.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유리막코팅을 할 때는 1대의 차량에는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하나의 품질보증서로 차종과 차량번호만 바꿔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 금리우대 ‘IBK 비즈플러스’ 적금 판매

IBK기업은행, 개인사업·법인고객 대상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IBK 비즈플러스(Biz-Plus) 적금’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0.6%포인트 ▲창업기업, 장기거래기업, 적금 재예치기업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0.1%포인트 ▲대출거래기업, 비대면채널 가입, 만기 월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 입금, 목표자금 달성(개인사업자 2000만원, 법인 1억원)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각 0.1%포인트씩 최대 0.3%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가입 가

능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5년 이하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만기 시 1년 단위로 최고 9회까지 자동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운용 가능하다.

만기 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립식은 최소 잔액 1만원을 유지하면 분할해지 가능하다. 자유적립식은 재예치 이후 최소 잔액 1만원을 유지하면 재예치 원리금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정기적립식은 월 1만원 이상, 자유적립식은 월 1만원부터 2000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판매한도는 총 2조원으로 올 연말까지 판매하고, 한도가 미리 소진되면 판매 종료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9월 말까지 월부금 5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년 만기 상품은 최대 연 2.6%, 5년 만기는 최대 연 3.0% 금리를 제공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우대금리를 높여 금리상승에 따라 적금을 갈아타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할해지와 중도인출을 통해 자금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금융위, 내일 삼성바이오 임시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조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12일 오후 4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며 “임시회의엔 금융감독원만 출석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첫 회의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대심(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금융감독원 안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20일 2차 회의는 삼성바이오, 금감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전회계법인이 참여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릴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SK하이닉스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난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될거야~”

“나는 우주로 갈거야!”

우리 생활 곳곳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 밖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당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영상이 궁금하다면

총 상금 7억원에 도전하라!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8.5.1 - 2018.6.30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더블 역세권에 최대 3억 차익... 영등포에 뜬 '로또단지'

Q 르포 | '신길파크자이' 견본주택 가보니

사전 상담전화 하루 300~400통
인근 단지보다 3억 저렴한 수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48가구
59㎡ 타입 경쟁률 50대 1 예상

'서울 영등포에 109㎡ 새 아파트가 최고 8억2640만원'.

지난 주말 '신길파크자이' 견본주택. 계산기를 두드려본 수요자들이 견본주택 개관일부터 줄을 섰다. 분양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50대 1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일단 분양담청만 되면 2억~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기회이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공급하는 '신길파크자이' 모델하우스엔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당첨되면 로또"

이날 오후 3시, 초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방문객들은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진을 쳤다. 오전에 비해선 줄이 반 토막 수준이었으나 내부에 들어서자 발디딜 틈을 찾기 어려웠다.

이종갑 GS건설 신길파크자이 분양소장은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최근 2주 동안 사전 상담전화 하루에 300~400통이 걸려 왔다"며 "모델하우스 오픈일이 금요일임에도 오후 4시 기준으로 누적 5800명 가량이 방문했다"고 했다.

신길파크자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시세 차익' 때문이다. 신길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6개 동 641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53가구(특별공급 103가구)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933만원으로, 전용면적별로 ▲59㎡ 4억8430만~5억2600만원 ▲84㎡ 6억90만~7억2990만원 ▲111㎡ 7억100만~8억2640만원 등이다.

인근 단지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래미안 영등포 프레미뉴 59.9㎡는 지난 4월에 8억3500만원에, 같은 달 영등포 래미안 에스티움 84.93㎡는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신길파크자이가 입주하는 2020년 12월엔 금액이 더 오를 것으로 관측,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2억~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신길파크자이'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유니트 등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채신화 기자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정부의 내 집 마련 '뭉텨내기' 영향으로 신혼부부의 수요도 높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고, 소득 기준 등을 완화했다. 신길파크자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총 48가구다.

이종갑 소장은 "사전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상담에서도 신혼부부가 많았다"라며 "신혼부부 문의가 많은 59㎡타입의 경우 경쟁률이 50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더블 역세권' 강점

신길파크자이의 또 다른 강점은 입지다. 단지가 7호선 신공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위치해 더블 역세권인데다, 인근에

개발 중인 각종 교통 호재가 있다.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신립선 경전철로 여의도~서울대 7.8km 구간이 연결되면 이 구간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2023년 개통 계획인 신안산선이 뚫리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50여km, 정거장 18곳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숲세권'도 확보됐다. 단지의 북쪽에 3900평짜리 근린공원이 있고 남쪽에 소공원 2500평짜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축구장 3배 크기인 총 6400평의 파크가 조성된다. 단지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담장도 없앴다.

신길파크자이의 최대 강점인 '분양가(시세차익)+입지'는 먼 거리 수요자들도 발걸음하게 했다.

성동구에 사는 박 모씨(49)는 "자녀들

이 고등학생이어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살 생각을 못했었다"라며 "그래도 교통이 좋고 시세차익을 생각해 보면 노후 대비 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분양 받을 수만 있다면 이동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지역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택이 과감해지고 있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거러 절벽을 맞은 영향이다.

이종갑 소장은 "신길파크자이는 인근에서 벗어나 마포, 종로, 성동, 용산까지 관심지역이 광범위해졌다"며 "서울 지역에서 분양은 적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 더 늦기 전에 하나라도 쥐고 있기 위해 살던 곳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6·13 지방선거로 '분양 숨고르기' 전국 5곳서 2522가구 청약

분양 캘린더

6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6·13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다. 다만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가 늘며 지방선거 이후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포함해 총 2522가구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수도권은 총 1237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서울에선 GS건설이 오는 14일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길파크자이'를 공급한다. 총 641가구 중 전용면적 59~111㎡, 253가구를 일반에 분

양한다.

경기 지역에선 포스코건설이 같은 날 경기도 오산시 세교1택지개발지구 B-8블록에 '오산대역 다산 센트럴시트'의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67~84㎡, 총 596가구 규모다.

지방에선 같은 날 강원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밸리시티3차', 대구 북구 연계동 '연경지구 A1블록' 등 1322가구가 청약을 시작한다. 다음 주 청약 당첨자 발표는 9곳, 계약은 14곳이다.

견본 주택은 8개 단지에서 오픈한다.

두산건설은 오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견본주택을 연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187가구 규모다. /채신화 기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주식형펀드 상승

주간 펀드 동향

북미정상회담 개최 영향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됨과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주식형펀드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6월1일~7일)간 전주 대비 1.96% 상승한 2470.58에 장을 마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된 가운데 미국발 무역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

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2.13% 상승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2.59% 상승한 1,149.68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88% 올랐다. 인덱스주식소스피200 유형 중심으로 순자산이 유입되면서 국내주식형의 순자산은 1조597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2.3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베트남(5.66%), 중화권(3.37%), 중국(2.47%)이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브라질(-3.99%), 중남미(-2.28%), 인도(-1.01%) 펀드 등은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손영지 기자

〈남북경협 '전력' 분야의 시그니처 종목 제시〉

(단위 : 십억원, 배, %)

코드번호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현재주가 (원)	PER (배)	PBR (배)	2017				2018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010120.KS	LS산전	2,274.0	75,800	21.15	1.94	2,343.7	5.9%	158.4	27.3%	591.6	5.7%	55.2	54.5%
033100.KQ	제룡전기	197.6	12,300	-	4.02	47.7	19.5%	-1.2	적자지속	7.7	-32.1%	-0.5	적자지속
007610.KS	선도전기	121.9	6,770	72.7	1.34	108.4	15.3%	1.5	-34.8%	13.0	-50.0%	0.4	82.6%

남북경협 이후 전력분야 최대 수혜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LS산전·제룡전기·선도전기

北 경제발전 위해 전력공급 시급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계획 주목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국의 움직임이 비빠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의 최대 수혜 국가는 러시아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

독립리서치리서치알음최성환수석 연구원은 10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전력공급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남북경협의 최대 수혜 분야는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991년 소련연방체제 붕괴 이후 발전용 전기가 남아돌면서 동북아 전력망 연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인접국인 중국에만 일부 수출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방되면 한국, 일본 등에 유류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부레야발전소는 연간 전력 생산량이 7100기가와트(GWh)로 국내 최대인 충주댐 844GWh의 8배가 넘는 것

로 분석되며, 러시아는 우선 북한과 전력을 연결해 잉여전력을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연구원은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은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쳤지만 그동안 북핵 문제와 남북 긴장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논의가 중단됐다"며 "향후 사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동북아 전력망 연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을 전제로, 슈퍼그리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업체 세 곳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리서치알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 기술을 갖추고 있는 LS산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초고압직류송전은 송전 한계거리가 20km로 제한된 교류 송전과 달리 송전 한계거리에 제한이 없고, 송전간 전력 손실도 적어 국가간 장거리 송전에 효율적이다.

최 연구원은 "LS산전은 HVDC 변환기를 비롯해 초고압 변압기, 전력 감시 시스템 등 대부분의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일의 지중매설형 변압기 생산업체인 제룡전기도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으로 국가간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남북 전

력 협력으로 북한 내 전력 송전이 원활해지면 산업단지, 가정집 등 최종 수요처로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 배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최 연구원은 "지중매설형 변압기는 일반 주상형, 유입형 변압기와 달리 교통사고, 화재, 파손으로 인한 정전 가능성이 낮으며, 폭우로 인한 침수에도 대비돼 북한 내 배전시설이 확대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개발한 내진형 고효율 변압기에 대한 국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리서치알음은 전력변환기기 생산업체 선도전기도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북한 내 대부분의 전력 설비가 노후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체가 불가피해 국내 전력 기자재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 중에서도 선도전기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함께 8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고, 지난 1분기 태양광 수주 잔고가 400억원에 달해 친환경 사업부문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가스열연개폐기가 철도 및 발전소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인 만큼 향후 남북 철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文 “평화와 민주주의는 한 몸... 시들지 않게 가꿔야”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고문상징 장소 ‘남영동’에
민주인권기념관 조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의 진전은 평화의 길을 넓히고 평화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문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적 장소로 꼽혔던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



6월 항쟁 31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 이한열 열사 묘소에 이철성 경찰청장 이름이 적힌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인권단체,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

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여야가 2001년 당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한 이후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도 추진해왔다. 최근엔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한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만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6월 민주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민주항쟁 승리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성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도 사라져야 하고 성평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堂堂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주말유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후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범중 기자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잠실 새내역 사거리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거리공동유세를 하며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일상속 민주주의, 갈 길 멀어” ‘단일화 무산’된 김문수·안철수 난타전

박원순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김문수 “후보 단일화 못 이뤄 죄송”
안철수 송파 잠실 일대 합동유세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광화문을 찾아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등 야권은 거리유세에 집중하며 맹추격에 나섰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광화문광장 지하 ‘광화문 광장과 함성’ 전시관을 관람했다.

박 후보는 관람 직전 기자들에게 “한편으로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많이 이룩했지만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지현 검사가 했던 성평등의 문 제도 마찬가지로”라며 “6월 항쟁과 30년 후의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시위는 유럽에서의 6·8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영동 대공분실의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사업을 자신이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유가족을 위해 작은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시 사전투표율이 19.1%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권력 모두 바꾸려는 국민의 의식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박 후보는 오후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이승로 구청장 후보와 유세에 나선 뒤, 대학로를 찾아 청년 길거리 토크도 진행했다.

반면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무산된 야권 후보들은 상대방을 찍으면 박 후보가 당선된다는 논리로 난타전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원순 후보가 된다. 곧 분열

하고 소멸할 정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의 열망을 이루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7년을 끝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것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총출동해 합동 유세를 벌였다.

특히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인 박준선·유승민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후보와 서울 송파를 재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가 함께 잠실의 한 냉면집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안 후보 측 김철근 공보본부장은 논평을 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표를 분산시키고 ▲옛 경기지사가 미래를 이끌 수 없고 ▲선거 후 정계개편에만 관심 있고 ▲전문성도 없고 ▲보수의 내리막길을 자초한 세력이므로 물러서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이범중 기자 joker@

남북 경협 기대감... 관련법안 봇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철도산업 등 3개 개정안 발의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경협 시대를 염두에 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이 무르익으면 경협을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5일 남북 및 대륙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남북 철도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게 하고, 해당 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국토부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

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 부문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4~5월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한 법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항만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11개에 달한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앞두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를 명시하고 정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분주한 선거종합상황실
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

삼성, 반도체신화 지속하려면... 이젠 '시스템LSI'다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16.1%'
메모리사업이 영업이익 90% 비중
비메모리반도체 경쟁력 확보해야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올해도 후발업체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어 삼성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86억700만 달러(약 19조9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5.4% 늘어난 수치이며 전 분기와 비교하면 1.6% 늘어난 것이다. 작년 3분기 이후 삼성전자가 세 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제외한 1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1%에 달한다.

2위 인텔과의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한 연구원이 공정 진행과정을 모니터로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있다. 인텔은 1분기 157억4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점유율 13.6%를 차지했다.

인텔도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11.1% 늘었지만 성장세가 약하기 때문에 올해도 삼성전자의 2년 연속 1위 수성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1993년 이후 업계 1위였던 인텔을 작년 3분기 6억5200만 달러 차이로 넘어선 바 있다. 이후 4분기에 15억 2300만 달러, 올해 1분기 28억6200만 달

러 차이로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는 81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고, 마이크론은 71억 9400만 달러로 4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이 2~3년 주기로 오는 메모리반도체 초호황기 덕분이며, 안정적인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메모리인 CPU에서 강하고 메모리에 서 약한 인텔을 완전히 넘기 위해서는 비

메모리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메모리 분야란 주문형제작 반도체(ASIC),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에서 ▲메모리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LSI 사업부를 두고 있지만 핵심역량이 메모리사업부로 편중되어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이 반도체 사업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과거 스마트폰과 반도체·가전 등 잘 짜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쪽 사업이 부진해도 다른 사업이 메워주며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메모리에 너무 편중됐다"며 "메모리사업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지난 4월 '세계 반도체시장의 호황 배경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6년 하반기 시작된 D램 주도 호황 국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점진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호황기 수익을 바탕으로 경기변동 영향을 상대적

으로 적게 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시스템LSI사업부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술력을 높여 퀄컴 등 시스템반도체 전문기업을 따라잡겠다는 목표이며 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새 성장동력으로 꼽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8'을 열고 올해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도 나섰다.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주력 분야인 14나노와 10나노 공정에서 빠르게 미세화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극자외선(EUV) 장비를 적용한 7나노 공정 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이어 5나노와 4나노 공정, 신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를 적용하는 3나노 공정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근성 카르텔조사과장이 서울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가락상인에 '116억' 과징금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수년간 담합한 중간상인들에게 1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했다.

지난 2000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의 출하자(농민)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부과해야 했다.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서 받았다.

그러나 5개 법인은 위탁수수료를 중도매인에게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자신을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농산물을 가져오는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벼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가락시장 거래금액 규모가 2003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8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농민들의 부담 역시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가락시장 주요 도매법인들의 이익률을 보면 최저 14.71%에서 최대 21.6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2016년 도소매업종 평균이익률 2.81%와 비교해 6~8배 높은 수준이다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은 2006년 9월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등이다. 담합에 가담했던 대아청과는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다르게 정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처분시효(5년)가 지나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도매법인 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르노삼성

실적부진 두 완성차의 위기탈출 카드

한국지엠

'르노' 브랜드 강화

美 SUV 수입 확대

올해 초부터 주력 모델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GM)이 본사 인기 모델을 공수해와 부진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GM 본사와 프랑스 르노 본사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차량을 전면에 내세웠다. OEM 수입차란, 국내에 생산기지를 둔 완성차업체가 모회사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를 말한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카드의 하나로 미국 GM(제너럴 모터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은 지난 6일 '2018 부산 국제모터쇼' 전야제에서 "SUV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 본토에서 성능과 가치가 확인된 유수의 글로벌 SUV

V를 국내 시장에 출시할 것"이라며 "기대해달라"고 말했다.6

그 첫번째 주자는 중형 SUV '이퀴녹스'다. 이퀴녹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29만대의 판매고를 올린 쉐보레의 베스트셀링 모델 중 하나다. 한국GM은 또 대형 SUV '트래버스'의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국내 브랜드 유일 픽업트럭 생산 업체인 쌍용차와 경쟁도 예고했다. 한국GM은 부산국제모터쇼 전야제를 통해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공개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공장에서 생산 중인 것들이다.

이 외에도 한국GM은 현재 대형 세단 '임팔라', 스포츠카 '카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볼트'(Volt), 전기차 '볼트'(Bolt)를 해외 GM 공장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도 국내 시장에서 르노

브랜드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르노삼성이 오는 2020년 '삼성' 브랜드 계약 종료로 앞두고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은 전시관 내 르노 브랜드 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르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르노 브랜드존에는 최근 출시된 르노 클리오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르노 120년 주년을 기념해 브랜드 최초의 생산판매 모델인 '타입A 부아트레(Voiturette)'를 전시했다.

두 회사의 변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에 생산라인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투자 없이 손쉽게 판매 차종 리스트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르노삼성과 한국GM의 전국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차 업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사후서비스(AS)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성운 기자 ysw@



2018부산모터쇼 르노삼성자동차 전시관에 전시된 르노 클리오.



한국지엠 쉐보레 중형 SUV 이퀴녹스.

제조업 가동률 '교역부진'에 장기 하락세

국내 제조업 가동률이 교역부진으로 장기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가동률 장기 하락의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제조업 전체의 생산지수는 4.2%, 생산능력지수는 9.6%, 가동률 지수는 -12.1%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부진 등으로 저금리 기조로 투자가 상대적

호조를 보이고 구조조정이 지연된 것을 장기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조업 생산과 생산능력은 모두 2010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다. 생산 증가율의 둔화 폭에 비해 최근의 투자 호조 등으로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둔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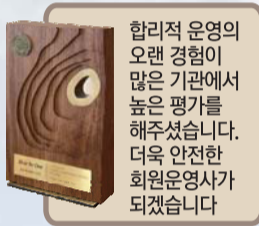
/정연우 기자 yw964@

신동아골프

멀티회원권이 대세!!
회원권 하나로 원하는
수도권 명문골프장
30여곳 이용하세요

창립14주년기념

무기명 특별회원모집



합리적 운영의
오랜 경험이
많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더욱 안전한
회원운영사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품질경영 인증 ISO 9001’ 획득
‘제3회 대한민국 스포츠레저문화 大賞’
‘대한체육회 회장 표창’
‘2010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대상’

신동아골프 멤버십회원권은 회원권 하나로
수도권의 30여곳 골프장을 현장회원대우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특별회원권입니다.



신동아골프 홍보모델 KLPGA 프로 허윤경

(단위:만원)

구분	입회기간	이용	내용	가입금액
법인	5년	기명1+무기명3	주중 3팀(월)	3,560
		기명2+무기명3	주중 4팀/주말 1팀(월)	6,300
법인 VIP	5년	기명2+무기명3	주중 3팀/주말 2팀(월)	9,450

수도권 30곳의 명문 골프장과
정식제휴로 부킹 걱정 끝!

부킹
YES!

보증금
YES!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만기회원
보증금 100% 반환!

상담문의 02-2186-4500

역대급 저평가 韓증시에 ‘경협 봄바람’, 변수는 금리역전

(韓-美간)

하반기 증시전망

북미회담·금리인상·월드컵 등 이슈
위기 美 금리인상 증시 상승폭 제한
기회 ‘중전선언’ 등 남북관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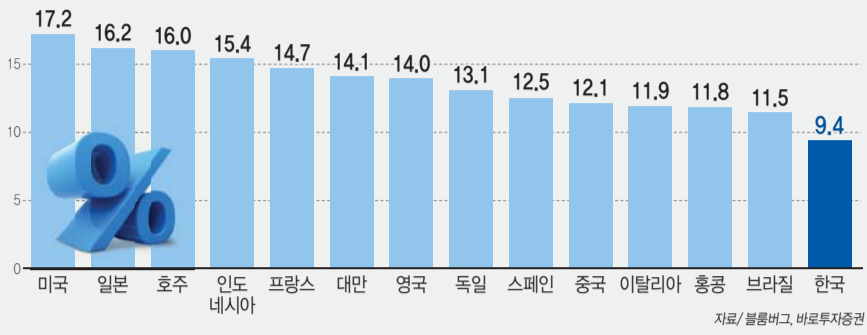
최근 남북 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으로 하반기 증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달 금리 인상이 확실해지면서 위협요인도 있다.

이에 따라 증시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 상승이 제한된 박스권에서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주가 상승의 기회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꺾이는 경기개선세 등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기회요인…남북관계 개선

현재 국내 증시는 역대급으로 저평가

주요 국가의 주가수익비율 현황 단위: 배



된 상태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9.4배다. 이는 미국(17.2배), 일본(16.2배)의 주요 지수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흔히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은 ▲ 낮은 배당성향 ▲ 불투명한 지배구조 ▲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꼽힌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대만(61%), 미국(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바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

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다. 특히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전선언’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는 국내 증시 매력도를 한 단계 더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바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체제가 긍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코스피지수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남북 평화무드가 지속됐던 2004~2007년, 코스피지수의 PER은 다른 해보다 높았던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대감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

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인 코스닥에서 5348억달러를 순매수하면서 14년 만에 최대 순매수세를 기록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108조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다만 과거 1993년 북한이 핵 사찰 수용 합의 이후 북미 핵 합의문이 제네바에서 체결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북미회담 이슈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협요인…한미 기준금리 역전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오는 12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1.75~2.00%로 0.25%포인트(p) 올린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상이 단행되면 지난 3월 역전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05년 한·미 금리차가 50bp(1bp=0.01%p)로 벌어졌을 때 외국인 투자금은 월 평균 9000억원씩 빠져나갔다. 국내 유입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함께 인상할 수도 없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 전망도 힘을 잃고 있고,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개선세도 1분기부터 한 풀 꺾였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장사 544곳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6% 늘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6.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 중 다행은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만 보면 내차례 금리 인상도 무리가 아니지만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이탈리아 위기설까지 들고 있어 유럽중앙은행(ECB)도 예정대로 9월에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지수는 상단과 하단이 제한된 새로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산재된 리스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보수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불고기 최고” 베트남 K푸드 행사 성황

9~10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미딘경기장 광장에 마련한 K푸드 홍보 행사장에 현지인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올 韓 성장률 전망치 2.8% 유지”

현대경제연구원

“후퇴에서 침체 국면 진입”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유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의 전망치였던 2.8%로 다시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의 전망치는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이상 3.0%),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2.9%)보다 낮고 한국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상 2.8%)과 같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최근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1년여 동안 하락하는 점, 산업생산이 재고투자와 기존 건설투자 물량에 의존하며 취약하게 진행되는 점, 고용이 부진한 점에 비춰 현재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구원은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2.8%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3월 전망(2.6%)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소득주도 정책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완화에 따른 관광객 유입 확대 가능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둔화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3월 0.9%에서 이번엔 0.6%로 낮춰 잡았다. 건설수주와 같은 건설 경기 선행지표 부진이 지속하고 하반기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해섰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3.9%로 3개월 전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 기계 수주와 같은 선행지표들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끌어온 반도체 투자 증가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6.2% 늘 것으로 전망했다. 3월 전망(5.9%)보다 확대됐지만 지난해 실적(15.8%)에 비해 크게 꺾일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신흥국 경기 위축 등 여파 탓이다.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9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실적(31만6000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실업률은 3.8%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우리 경제 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호한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내수 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기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고려하고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시장 진출·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해 경제의 고용 창출력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이차전지 부품 ‘니켈’ 3년 후 가격 16% ↑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망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니켈의 소재 가격이 3년 뒤 약 1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정보포커스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예상 니켈 국제 시세는 1t당 1만7759달러(약 1912만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8월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니켈 국제 거래 가격은 1t당 1만5240달러(약 1641만원)다.

니켈은 전기차용 이차전지 양극 소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대부분 니켈·코발트·망간 또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양극재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니켈은 이차전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비중을 높이려고 연구 중인 소재다. 이차전지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고 몇 년 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코발트의 비중을 니켈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LME 기준 코발트 국제 거래 가격은 1t당 9만3696달러(약 1억92만원)로 니켈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광물공사는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니켈 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은 니켈 외에도 구리 등 주요 산업재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해 비철금속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2018년도 전체 예상 니켈 수급은 정련 니켈 예상 소비량 226만t·예상 공급량 218만4000t으로 공급량이 7만6000t 부족할 전망이다. 그러나 LME의 니켈 재고량이 다른 소재에 비해 많아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월5일 기준 LME 니켈 재고량은 28만7000t이다.

자원공사가 예상하는 올해 3·4분기와 4·4분기 니켈 평균 가격은 각각 1t당 1만4729달러(약 1586만원)와 1만5305달러(약 1648만원)다.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4월6일 미 정부는 크림반도 병합·시리아 정부군 지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러시아에 관료 17명·신용채널 7명과 이들이 소유한 기업 12곳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 가운데 루살(RUSAL)은 세계 2위 니켈 생산업체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예상됐다.

/박찬길 기자 cgr@

FIU, 자금세탁방지 TF 구성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가한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관계전문가 등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동향과 미국 제재 등 최근의 여

건 변화를 공유해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FIU에 따르면 최근 FATF 상호평가는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FIU는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 방안 추진한다.

이러한 추진방안은 2019년 상반기에 서면평가를, 하반기에 곧바로 현지실사를 진행해 2020년 초에는 FATF 총회에서 결과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 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1@

정책브리핑

해수부, 2018 세계 해사의 날 행사 참석

김영춘 장관, 16일까지 유럽 방문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장관(사진)은 '2018 세계해사의 날' 각료급 회의 참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및 유럽 해운업 단체 면담 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영국, 폴란드 등 유럽지역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4일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채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와 IMO가 공동 개최하는 2018 세계 해사의 날 행사에 15일까지 참석한다. 김 장관은 50여 개국의 해운·해사 관련 부처 장·차관들과 각료급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등 친환경·스마트 해운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다. 또한 회원국들 간의 기술협력 강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카우 분 완(Khaw Boon Wan) 싱가포르 교통부 및 사회간접자본부장관과 클레오파트라 돔비아-헨리(Cleopatra Doumbia-Henry) 세계해사대학 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해운·해사분야 상호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세종=최신동 기자



손 높이 든 이재명-추미애-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롯데마트 시흥배곧점 앞 사거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 지원위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오른쪽)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심시간 식당 이동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오늘부터 지침 시행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구내식당 유무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취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동 기자

해외 기술규제 극복 학술경진 열린다

8월 24일까지 TBT 논문대회 접수 오는 11월 2일 본선 발표대회 개최

최근 세계적으로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자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이란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논문대회 참가신청 접수는 8월 24일까지며 원고제출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11월 2일 열리는 본선 발표대회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학생부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가 기회를 부여해 실제 통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규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최신동 기자

에너지·헬스 등 지역 클러스터 외투기업 준해 인허가기간 단축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부, 균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혁신도시 프로젝트 지원 등 준비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서의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외국인투자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인·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허가 기간에 준해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앞두고 혁신도시 등

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지역혁신체계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균형발전기화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체를 운영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

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대상사업 선정기준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경제총괄과)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동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휘발유 값 7주연속 상승

국내 휘발유 가격이 7주째 상승곡선을 그리며 평균 1610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10일 한가한 분위기를 보이는 서울의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고용위기 지역' 생계비 지원 2배 확대

근로복지공, 1천만원→2천만원으로 울산시 동구·군산시 지역 등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부 한도를 높인 것은 지난달 21일 추경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위기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

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한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동 기자

농식품부,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 마련

'은퇴 조합원 혜택' 정관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축협 조합원이 은퇴 후 조합원 지위를 잃더라도 조합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 조합원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1일자로 명예 조합원에 대해 교육지원사업, 배당청구권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관 고시인 농축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정관례는 70세 이상, 조합 가입 20년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은퇴 농업인이면 준(準)조합원으로서 소정의 가입금과 경비 등을 납입하고 조합 사업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해 조합 사업을 계속 이용하고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세부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면 된다"며 "이번 제도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동 기자

광주 軍 공항 이전, 지방선거 끝나고 급물살 탈까

당선 유력후보 이전문제 적극적
여론수렴·지역주민투표 강조
이전부지 스마트시티 등 추진



광주 도심을 비행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지방선거로 주춤하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선거가 끝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취임하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영암·무안·해남·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 후보지역으로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 후보지를 토대로 군사 작전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안에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활발하게 이뤄지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 공백과 맞물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선 유력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가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시장이 되면 전남지사와 공항 이전 장소(입지)에 대해 바로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 조기에 이전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일지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군 공항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전남지사 유력 후보의 입장은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단순히 찬반 입장을 개진하는 것보다

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와 광주시, 공군 등과 협의의 절차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해당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여론 수렴과 주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무안 공항을 통합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자는 일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과 투표를 거친다면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의 정책 과제이기도 해서 선거가 끝나면 양 시·도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관건이다.

새로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합의했더라도 이전 후보지 주민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도 단체장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전작업에는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다.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이전 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4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전남도와 함께 국방부와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해서 이전사업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나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해 합의를 끌어내고 주민을 설득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수국으로 '알록달록' 물든 수목원

초여름과 가장 어울리는 꽃, 수국이 전남 해남군 현산면 남도수목원을 알록달록 물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식사접대부터 돈 봉투까지... 선거현장 얼룩

전남 도내 선거 범죄 기승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할 것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도내 선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품제공,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작 등 온갖 흔탁 양상이 경찰과 선관위 등에 적발되고 있으나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에서는 특정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의원 예비후보인 B씨와 같은 계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에게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1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씨의 집과 선거 사무실을 압수 수사하기도 했다.

함평에서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평군수 후보 C씨의 측근 D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 출신인 D씨는 지난달 11일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주민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5만원권 지폐 10장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이 주민은 봉투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돌려줬으며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평군수 예비후보 한 명이 사조직 식사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신안에서는 지난달 한 주민이 이웃 20여명을 모아 음식 대접을 한 것을 놓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 지역 일부 민주당 후보와 선거구민 간의 일명 '용봉탕 회식' 역시 경찰이

조만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회식의 불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5일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30일 저녁 화순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이 회식에 대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싸움까지 벌어졌다.

평화당이 "후보와 이장 등 지역인사 수십 명이 자라탕 파티를 벌였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경선 낙선자를 위로하기 위한 모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처럼 각종 불법행위로 전남지방경찰청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총 300여 명, 160여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비를 가리고,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우이도 ↔ 목포 車도선형 여객선 첫 취항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목포 항로 간 구간에 차도선형 여객선 '드림아일랜드호'가 지난 8일 첫 취항했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도보조 여객선이 목포항까지 하루에 1회밖에 운항하지 않아 도서주민과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에 제한을 받아 불편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민영 여객선 취항으로 하루 2회 운항으로 우이도와 내륙간이 1일 생활권으로 변모했다.

이와 함께 항로 폐업으로 해상교통이 두절된 신안군 안좌면 사치도를 기항하는 등 도초면 우이도와 안좌면 사치도 등

지역 해상교통 여건이 개선돼 도서주민은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와 안좌면 사치도를 경유해 목포항까지 운항하는 드림아일랜드호는 올해 2월 건조된 449t급 차도선으로 여객 300여명과 승용차 35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도초면 우이도에서 정박 출항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도서지역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항로 개설 및 소규모 어항, 포구의 접안시설 개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신안=김남중 기자

농성지하차도 공사구간 제한속도 '40km'로 상향

광주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서구 농성지하차도 공사 구간 제한속도를 현행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구간에 속도 제한 표지 16개, 도로 이정표를 이용한 예고 표지 5개, 공사안내 간판 9개, 노면 표지

등을 보강할 방침이다.

농성지하차도는 상습침수와 급경사·시야확보 곤란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현재 구조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9월까지 농성지하차도를 부분적(1~6단계)으로 폐쇄하고, 2020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전남도청 갤러리

'수목의 공간' 기획전

전남도는 '전남도청 갤러리' 개관 기념 첫 기획전으로 '수목의 공간'을 선보였다. 도청 청사로비에 약 52㎡(16평) 규모로 설치한 갤러리는 도민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청사 방문객에게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 미술인과 대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준다.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수목의 공간 전시에서는 수목 양식의 작품 24점과 수목화 도구를 선보인다.

허달용, 정경화, 이이남, 이채영 등 현대 작가 4명의 작품 6점도 전시된다.

전남도는 오는 9~10월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수목 기획전을 한 번 더 열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광주시 강변 축 자전거터미널 8곳 '인기'

광주시가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강변 축 자전거터미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부터 광주천변과 영산강변에 운영하고 있는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8곳에 하루 평균 자전거 이용자 500여명이 즐겨 찾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전거 터미널은 용산교, 중앙대교, 동천교 등 광주천변 3곳과 침단교, 산동교, 어등대교, 극락교, 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이다.

각 거점터미널에는 자전거 전문가 2명이 배치돼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김남중 광주시 도로과장은 "자전거 이



광주 자전거 거점터미널

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거점터미널이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거점터미널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grovana.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GMT
1547.1528

유한킴벌리

北 산림 복원사업 팔 걷어 양묘 지원사업 준비 '착착'

유한킴벌리가 남북 경제협력에 본격화하면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하기 위해 북한 양묘 지원 사업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올해 가을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에서 소나무와 쉬나무 등 묘목 21만 본이 첫 출하되면 북측이나 비무장 지대 숲 복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1999년부터 1300만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 증자와 묘목 지원 사업을 해왔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고성 등 북한 지역에서 양묘 지원 사업을 해오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9년 이후 중단했다.

이 회사는 NGO단체인 생명숲 및 산림청과 2014년부터 비무장 지대와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를 위해 1.1ha 규모의 양묘센터 조성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를 완공했다.

이 양묘센터는 한반도 생태복원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생명숲과 협력해 운영하는 양묘 생산시설로,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쉬나무 등 연간 45만본까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북한의 숲 사정을 보면 일제 강점기와 6·25, 그리고 에너지 부족에 따른 연료림 대체로 많은 산림이 소실됐다"며 "북한 산림 복구를 통해 한반도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지역의 산림 황폐화가 가속하면서 1910년 70%에 달한 한반도의 숲은 2015년 52%로 줄어든 상태다.

실제 북한 지역에선 최근 20년간 매년 여의도 면적의 430여배에 달하는 12만7000ha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산림 황폐화로 반달가슴곰 등 70여종의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한반도 생태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녹색 댐 기능 약화로 우리나라도 임진강 범람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남북 협력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생활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도 갖고 있다. /김승호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우수 중소기업 제품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서울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을 위한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상의는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와 상품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한다. 국내외 모바일 쇼핑시장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판매 노하우를 교육한다.

서울상의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60%가 모바일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함께 네이버·아마존·타오바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위해 입점방법에서부터 운영,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지원을 원샷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40개사는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설명회는 14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다. 모바일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모바일 쇼핑시장 진출전략, 아마존·타오바오·네이버를 통한글로벌 쇼핑시장 진출 전략이 소개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아파트 도면, 2초 만에 3D로

메트로가 만난 기업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갖고 놀기 좋아하던 건축학도는 결국 컴퓨터로 밥벌어 먹는 일에 승부수를 걸었다.

자신보다 잘 하는 건축가가 많아 이것만으론 승산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유명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건축을 아예 포기하진 않았다.

더욱 자신 있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건축에 접목시켜 사이버상에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인이 이를 공유하고 활용한다. 유튜브가 그랬듯이 우리는 집단지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세계 최초·최대의 '가상화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우리 플랫폼에선 건축물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간 정보들을 3차원(3D)으로 올릴 수 있고 또 이들 데이터를 내려받아 AR(증강현실) 또는 VR(가상현실) 등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공간 정보에 관련한 글로벌 최고의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3D 공간 정보 분야의 유튜브'.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가 그리고 있는

451만 가구 3D 데이터 보유 전국 아파트 단지 70% 달해

공간정보 3차원으로 공유하고 AR·VR로 즐기는 '플랫폼' 목표 "3D 공간정보의 유튜브 되고파"

그림이다.

어반베이스의 '가상화플랫폼'이 전 세계 공간 정보의 '보고(寶庫)'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2차원 평면이 아닌 3D 입체로 말이다.

어반베이스는 건축물의 평면도를 단 몇 초만에 3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이 기술이 어반베이스의 핵심이다.

하 대표는 "일반적인 도면에 그린 것을 3D로 바꾸는데는 2초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 70%에 달하는 약 451만 가구의 평면도를 3D 데이터로 가공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나 가구전문점 일룸 등의 매장에서 어반베이스의 3D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면적과 색깔 등에 어울리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을 3D 화면을 보면서 골라볼 수 있다. 어반베이스닷컴 홈페이지에는 전국 아파트 451만 가구의 3D 데이터가 고스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가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란히 올라가 있어 온라인 상에서 집꾸미기를 하는 등 활용도가 다양하다.

어반베이스가 만든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은 이처럼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재난 등 안전분야에서도 폭넓게 쓰일 수 있다.

실제 하 대표는 2014년 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당시 잠수부들이 구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물속에 잠긴 배의 모습을 3D로 만들어 구조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 대표가 친구와 회사를 차리기 바로 직전이었다.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져 세월호 도면을 구해 이를 3D 정보로 바꿨다. 과거에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상기할 때 AR 또는 VR로 공간정보를 접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공적인 일엔 어반베이스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어반베이스는 올 가을에는 건축가나 디자이너 등을 위한 새로운 버전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시장도 노크하고 있다.

젊은 회사 어반베이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사회적인 대세라면 회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도입해 개인의 자율성을 높인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여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구성원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지키면 성공한 것이다."

하 대표의 말이다. 마침 어반베이스는 11일로 꼭 창립 4주년을 맞는다. 곁을마를 한창 시작한 어반베이스는 올해 '더닝포인트'를 위해 이렇게 달달 준비를 마쳤다.

/글·사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무상 지원 코웨이는 환경부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기청정기를 무상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 처음 참여한 코웨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총 16곳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준 코웨이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이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이대목동병원, 4대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평균점수보다 크게 상회

이화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이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 4대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6차), 유방암(5차), 폐암(4차), 위암(3차) 적정성 평가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2016년 한 해 만 18세 이상 4대 암 환자가 치료받은 내용을 분석했다. 평가 항목은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여부, 수술·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 등이었다.

특히 이대목동 병원은 해당분야 평가가 시작된 이래 대장암 6회 연속, 유방암 5회 연속, 폐암 4회 연속, 위암 3회 연속 1등급을 받아, 4대 암 부문에서 연이어 1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치료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자이클 여름 신제품 '스탠드형 통바람·냉풍기'

자이클은 여름을 맞아 '자이클 스탠드형 통바람'과 '자이클 냉풍기'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탠드형 통바람은 바람의 방향을 아래로 1단, 위로 7단 각도 조절이 가능해 더위와 실내공기 환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형 공기순환기다. 일반 선풍기와 차별성을 둔 심플한 디자인에 무게는 1.94kg로 가벼워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스탠드형 통바람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순환시스템'이다. 특히 거실 에어컨과 같이 사용할 경우 집안의 온도를 통바람으로 빠르게 순환시킴으로써 에어컨 과다 사용을 줄여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자이클 냉풍기'는 선풍기보다 시원하고 에어컨보다 전기료 부담이 적은 기



냉풍기 스탠드형 통바람

화냉각 방식의 냉풍기로, 세련된 느낌의 블랙 컬러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물과 얼린 냉매팩을 물통에 넣고 냉풍 버튼을 누르면 더욱 차갑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건조한 실내에서 사용 시에는 가습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다.

가격은 통바람이 19만8000원, 냉풍기가 11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바디프랜드-삼성물산 안마의자에 'IoT' 접목

스마트홈 체험관서 제품 선택

바디프랜드와 삼성물산이 손을 잡았다.

바디프랜드는 이달 초 문을 연 삼성물산의 스마트홈 체험관 '래미안 IoT 홈랩(HomeLab)'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안마의자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체험관 안에 조성한 영화관(휴머터)에서는 IoT를 통해 스마트 기술을 구현하는 바디프랜드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라오S'(사진)를 만나볼 수 있다. 사용자가 영화를 보기 위해 파라오S에 앉아 안마의자 마사지 기능을 작동시키면 그에 맞춰 커튼이 쳐지고 조명이 어두워지는 등 영화 관람에 최적화된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각각의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성과 행동 패턴에 맞게 기기가 알아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다.

삼성 래미안 IoT 홈랩에서는 안마의자 파라오S 외에도 바디프랜드가 판매하는 라클라우드의 고급형 침대 '마로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건강도 잡고 수분도 잡는 '수분보충음료' 시장 커진다

블루다이아몬드

식물성 음료 '아몬드 브리즈'

현대약품

식이섬유 함유 '미에로화이버'

동아오츠카

물처럼 산뜻한 '이온워터'

CJ헬스케어

여자를 위한 '히비스커스 헛개수'



아몬드 브리즈(왼쪽부터), 미에로 화이버,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 히비스커스 헛개수 /각사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건강까지 담은 수분보충음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름이 되면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돼 평소보다 체내 수분 손실이 커 체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2L다. 그러나 한국인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은 남자 1L, 여자 860ml로 권장량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 이는 다소 미미한 물을 마실 때 물비린내가 느껴지거나 물이 물러서 먹기 힘들어 하는 등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철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나 커피, 맥주를 마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탄산에는 탄산의 청량감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인산이 포함되어 있어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카페인도 든 커피나 맥주는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오히려 체내의 수분 배출을 돕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식음료업계에서는 다소 미미한 생수를 대체하며 건강한 수분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분보충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블루다이아몬드는 아몬드로 만든 식물성 음료 '아몬드 브리즈'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의 경우 일반 우유 대비 1/3 정도에 불과한 35kcal의 저칼로리(190ml 기준)에 1일 영양소 기준치 89%에 해당하는 비타민 E와 33%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어 스포츠 활동 후 물 대신 즐기면 칼로리 부담 없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100% 캘리포니아산 프리미엄 아몬드 식물성 음료로, 평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유당불내증(유당 분해 능력이 없거나 약한 상태)'을 가진 사람도 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약품의 '미에로화이버'는 식이섬유가 함유된 대표적인 음료다. 새콤달콤한 맛과 산뜻하고 깔끔한 목넘김으로 인해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미에로화이버는 수분섭취와 함께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중인 여성이 마시기도 부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동아오츠카는 최근 음료대신 생수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를 내놓았다.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음료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한 이온음료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깔끔하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포카리스웨트가 체내 수분보충을 위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이온 등의 성분을 체액에 맞춰 기능적인 면을 최적화한 제품으로, 일상생활 중 갈증해소를 위한 기능은 유

지하면서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산뜻한 맛을 강조하고 칼로리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CJ헬스케어는 최근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여성 소비자에 주목, '여자가 마시고 싶은 첫 번째 차(茶)'라는 슬로건의 '히비스커스 헛개수'를 새롭게 출시했다. 히비스커스 꽃을 전면에 내세운 붉은 색 패키지로 출시된 히비스커스 헛개수는 꽃을 우려내 상큼한 맛을 낸 음료로,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가볍게 즐기기에 좋다. 특히 히비스커스 헛개수의 주 원료인 '히비스커스 꽃'은 주로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무궁화과의 꽃으로, 여성 건강과 미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드록시시트릭산(HCA),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등이 함유됐다.

업계 관계자는 "음료업계에서는 물 한 병도 특별하게 마시려는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수분보충음료 제품들이 앞으로 더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현대백, 참이슬과 술-패션 협업상품 선봬

현대백화점-하이트진로

브랜드 협업 '팝업스토어' 오픈

현대백화점은 하이트진로와 함께 14일까지 판교점에 '참이슬' 팝업스토어를 열고 10일 밝혔다.

최근 식음료업계와 패션업계 간 협업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주(酒)류와 패션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선한 콘텐츠를 통해 SNS상에서의 입소문을 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재미를 더하겠다는 전략이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참이슬' 콘텐츠와 의류브랜드가 협업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헤지스·티아이포맨·시리즈 등 9개 브랜드의 30여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하는 상품들에 하이트진로의 마스코트 '두꺼비'를 그려 넣어 젊은 층에게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대표 상품은 티아이포맨 남성티셔츠(4만8000원), 헤지스 여성티셔츠(5만9400원), 그린피쉬 슬리퍼(1만5000원),



현대백화점 참이슬 팝업스토어 /현대백화점

올젠 양말(1만원) 등이다. 상품들은 각각 300~1000개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팝업스토어 기간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밴드 '혁오'의 앨범 제킷을 그린 노상호 등의 신진 아티스트 8명이 디자인한 소주병들을 전시한다. 또 탁구공을 던져 소주잔에 넣는 '이슬통통' 이벤트를 진행해 성공한 고객들에게는 에코백·우산·헤어핀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팝업스토어는 목동점(6월 15일~21

일), 중동점(6월 22일~28일), 대구점(6월 29일~7월 5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이종업계 간의 협력이 활발해져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성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주와 패션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G마켓 '국내여행 할인대전'

"도심 여행상품 찾는 '휴가족' 모여라"

G마켓이 도심 휴가족을 위한 '국내여행 할인대전'을 연다.

G마켓이 최근 한달 간(5월 8일~6월 7일) 도심 여행상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도심 휴가족은 최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에 위치한 호텔 및 레지던스 판매량이 318% 증가해 가장 인기를 끌었고, 경기권의 콘도 및 리조트는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호텔 및 레지던스 판매량은 18%, 제주여행 판매량은 13%로 늘었다.

외식을 즐길 수 있는 e쿠폰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동기간 호텔 뷔페 및 레스토랑 e쿠폰은 9배 이상(860%) 판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뷔페 이용권이 230%, 부산과 울산지역은 107%, 인천과 경기 지역은 96% 각각 신장했다. 이외에도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마사지나 피부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뷰티 e쿠폰은 74%, 영화관람권은 69% 증가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G마켓이 오는 30일까지 도심 휴가족을 위한 '국내여행 할인대전'을 연다. /G마켓

이러한 수요를 잡기 위해 G마켓은 오는 30일까지 '국내여행 할인대전'을 열고 숙박, 레저입장권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매주 '금주의 슈퍼딜' 코너를 통해 국내여행, 제주여행, 숙박, 레저입장권 등 총4가지의 테마에 맞춰 다양한 여행상품을 특가에 선보이고, '원데이 특가' 코너에서는 호텔과 리조트, 콘도, 펜션 등 인기 국내 숙박 상품들을 매일 한정수량으로 할인 판매한다. 4대 카드사(신한·국민·NH농협·롯데)를 이용해 결제 시 최대 10만원의 추가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7~9일 일본 도쿄에서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총 250만 달러(약 27억 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은 일본 수출 상담회 현장.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日서 中企 해외진출 상담회 개최

롯데홈쇼핑이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 판로를 넓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50개사의 70개 상품에 대

한 수출 상담 결과 총 250만 달러(약 27억 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일부 상품은 현장 계약 체결로 일본 진출이 확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롯데홈쇼핑이 일본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 해외수출 담당 직원들이 현지 바이어들에게 직접 상품 수출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대만, 베트남 등 롯데홈쇼핑이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등 사업 진출 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중소기업들의 진출 희망 의사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 /김민서 기자

갤러리아백화점 "투표 인증하면 상품권 드려요"

갤러리아백화점이오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공적인 선거를 위한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선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방선거일 임직원과 협력사원, 고객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개점시간을 조정하고 투표 인증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날 명품관, 타임월드, 센터시티, 수원점, 진주점 등 전 지점의 개점시간을 평소보다 30분 늦춘 오전 11시에 연다.

또한 본인의 투표 일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장거리 출퇴근자는 근무 스케줄 조정을 통해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고객 대상으로는 '투표 확인증'이나

'투표 인증샷' 소지 시, 지점별로 증정품 및 상품권 제공 등 투표 장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명품관에서는 투표당일 투표확인증 및 투표 인증샷을 보여주면 '비밀이 없는 건강한 아이스크림'이라는 콘셉트의 'EBA' 수제 아이스크림 쿠폰을 증정한다.

대전에 위치한 타임월드에서는 투표당일 투표확인증 지참 시 단일브랜드 30만원 이상 구매시 5% 상품권 증정권과 10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금액할인권 증정, 그리고 선착순 150명에게 네일아티스트 '은유'가 제작한 네일스티커를 증정한다.

천안에 위치한 센터시티에서는 투표 확인증 및 투표 인증샷 제시 시 8층 전문 식당가 전 메뉴를 10% 할인(일부 식단 제외)혜택을 공한다. /신현서 기자 tree6834@

LG전자, 문화재청과 韓문화유산 보호 나선다

경복궁 관리소에 코드제로 A9 기증

LG전자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한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8일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경복궁에서 후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 배상호 노조위원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LG 코드제로의 광고모델인 여자 컬링팀 '팀 킴' 등이 참석했다.

이날 LG전자는 공궐 마루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코드제로 A9 5대를 경복궁 관리소에 기증했다. 코드제로 A9은 모터가 손잡이 부분에 위치한 상중심(上中心) 타입의 무선청소기다.

LG전자는 49형 디지털 사이니지 10대도



'팀 킴' 김선영 선수, 배상호 노조위원장,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왼쪽부터), 김경애 선수(오른쪽 끝)가 경복궁 경회루를 청소하고 있다. /LG전자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경복궁 대표소에 설치되며 관람객들은 주요 행사와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올해 11월 영국 피

커딜리 광장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7서울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코트라 ICT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다

코트라(KOTRA)가 지난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ICT 스타트업 해외진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KOTRA 베이징 IT지원센터에 입주해있는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개발사 이에스이의 이창호 전무는 "작년 중국 헤비이성 당산시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시스템 수출사례



권평오 KOTRA사장(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TRA

를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해외 투자가, 전문가와의 연결에 코트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평오 KOTRA 사장은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새로 나온 책

서커스 나이트

민음사/요시모토 바나나 지음



일본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가 신작 소설을 출간했다. 의문의 편지와 함께 시작되는 이 책은 코지 미스터처럼 기묘한 궁금증을 일으킨다. 편지의 진실과 이에 연관된 과거의 이야기가 요시모토 바나나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밝혀진다. 대자연의 힘과 발리의 매력이 가득 담긴, 뒤죽박죽인 가족 구성원이지만 서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사람들의 잔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다.

정령이 가득한 나라 발리에서 불가사의한 존재들과 함께 성장해 온 사야카는 사물을 만지면 그와 관련된 기억이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명 사이코메트리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발리에서 성장해 자유롭게 발리에서 성장했던 그녀지만 끈금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한 지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아 달라는 엉뚱한 부탁을 수락하여 일본에 머물고 있다. 시부모님 집의 2층에서 어린 딸 미치루와 나름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 사야카의 일상을 깨는 기묘한 편지가 도착한다. 맥의 마당에 소중한 무언가가 묻혀 있으니 조금 파내도 되겠냐는 내용인데, 더 놀라운 것은 보낸 사람의 사야카의 옛 연인 이치로라는 것. 사야카는 몰래 마당의 흙을 파 꾸러미 하나를 발견한다.

417쪽, 1만40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책

프사케야슈/너 세네일 브랜드 지음



일상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우울감은 심각할 경우 신경과학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만, 대개는 심리적인 차원,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자존감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한 다음, 여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자주 직면하는 여러 고민 사례와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거리감의 중요성과 화를 표현하는 법, 불안감을 다루는 방법 등을 다정하게 일러준다.

200쪽, 1만3000원 /신정원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1일 (음 4월 28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기대만큼 크게 성과가 없는 날이다. 60년생 시작이 반이니 바로 시작 해 보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변화의 날이다. 옷차림에 신경 써 보자. 84년생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소 49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니 배우자에게 신경 쓰자. 61년생 신세 진 사람에게 빚 갚을 일이 생긴다. 73년생 다다익선이라 많을수록 좋다. 85년생 아랫사람과의 인간관계로 고민할 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호랑이 50년생 자손의 건강과 행복이 나의 미래와 희망이다. 62년생 충동적 소비를 자제해야 하는 날. 74년생 표정관리를 잘 해야 하는 날이니 주의. 86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토끼 51년생 주변의 김 씨가 도와주는 날. 63년생 그냥 지나친 사람이 은인일 수 있으니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라. 75년생 창의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87년생 연인의 변심이 우려되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말 5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 되는 것. 64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 76년생 인사가 만사이니 주변인을 잘 챙기는 것이 좋다. 88년생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하루.

뱀 53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복을 부른다. 65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를 정해야 한다. 77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나 기뻐할 수만 없다. 89년생 상대방을 배려하면 내가 존중받는다.

말 54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낭패 본다. 66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78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 활용 잘 하기. 90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 하는 것이 좋다.

양 55년생 알아도 모른 척하고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덮어 줄 것. 67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이다. 79년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91년생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원숭이 56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이 뜻밖의 기쁨을 준다. 68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이다. 80년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자. 92년생 물고기 물 만난 격이니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시작하라.

닭 57년생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법. 69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라. 81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93년생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

개 58년생 집안일은 자녀와 의논해서 결정하라. 70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 질 수 있는 날이다. 82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좋다. 94년생 비가 온다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이 필요 없다.

돼지 59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71년생 경험자나 연장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83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95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8	1
		3	5		4	9	
							4
			9	8			
9	1		2		3		7
			7	6			
4							8
		6	8		1	2	
	5						4

2						1	4
9	1	4		8		3	
			4		1		7
	4			1		5	6
8	7		2		9		
				7		6	
			3	5	4		
		1				5	
8	6					4	7

스도쿠 정답								
9	7	1	6	2	3	8	5	4
5	2	3	1	7	8	9	6	4
8	6	2	5	9	7	1	3	4
6	1	8	9	5	2	7	4	3
2	9	5	2	7	1	8	6	9
5	2	7	8	1	6	2	3	4
7	5	2	9	1	6	2	8	3
2	6	7	8	5	9	1	3	4
1	8	9	2	6	5	7	4	3
4	2	7	6	1	9	8	5	3
6	2	5	8	2	9	1	3	7
1	8	9	7	5	6	2	3	4
2	5	8	9	7	1	5	6	1
7	1	6	2	3	5	2	9	8
9	5	2	6	1	8	7	2	3
2	6	2	1	5	7	8	5	9
5	9	2	8	7	2	7	1	6
8	7	1	5	9	6	5	2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四季

운세 깎아 먹는 갑질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인 '흥부전'을 보면 흥부와 정반대인 놀부가 나온다. 소설 속의 놀부는 부족할 것 없는 부자임에도 온갖 종류의 남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초상난 데 춤추기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애호박에 말뚝 박기 비오는 날 장독 열기 놀부가 하는 짓은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런 짓들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현실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갑질은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이다. 갑질은 당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괴롭게 한다. 갑질은 천한 행동이고 갑질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단 갑질은 재벌이나 대기업의 주인공들이 아니다. 사회전반에 이런 행태를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주위에 보면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갑질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천한 행동으로 자기 사주를 타고 들어올 행운을 아쉽게도 꺾어버린다. 삼삼자 중에 재물 운 좋은 남자가 있었다. 남보다 노력은 덜 하는데 돈은 잘 벌었다. 그 남자의 특징은 갑질이다. 직원들에게 특하면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렸으며 인간적으로 무시하기를 다반사로 했다. 생계 때문에 버티던 직원들은 결국 다른 직장으로 옮기곤 했다. 그러던 중 참다못한 직원 한 사람이 세금 탈루 사실을 고발해버렸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은 회사의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그 남자는 짧지만 교도소 생활을 했고 거액의 벌금을 냈다. 천한 행동으로 좋은 사주의 운세를 다 날려버린 셈이다. 석가모니는 '숫타니파타' 경전에서 천한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작은 것을 탐내어 약탈하고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재산이 넉넉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천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며 우주의 도둑이기에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석가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즘 말하는 갑질에 대해 경고를 한 셈이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은 자기의 이익을 탐내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분명한 것은 지나친 탐욕과 포악한 성품이 좋은 운세를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좋은 사주의 영향이 평생을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천한 행동을 하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천한 행동이 가져오는 나쁜 기운이 사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남을 사정없이 괴롭히고 누가 보아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운명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예술과 스타일



홍경안의 시시일과

학생 또는 이제 갓 미술계에 발을 들인 젊은 작가들과 작품 관련 대화 시 곤잘 접하는 질문들이 있다. 자신만의 표현방식 혹은 독자적인 길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는 일정하고 통일된 독자적 양식, 즉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있다.

최근 모 대학 강의에서도 그랬다. “누군가에게 작품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과거와 현재의 작업이 너무 다르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고 운을 뗐던 학생은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곧 나만의 스타일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필자의 입장에서 위낙 자주 듣는 물음이라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현재로서는 특유의 예술적 방식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극히 합당한 시간을 지나고 있으니 염려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문제처럼 비취지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타일과 관련해 영국 작가 이언 잭맨은 그의 저서 ‘아티스트를 위한 멘토링’에서 유아트의 대가인 브리짓 라일리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썼다. “예술가의 초기작은 여러 가지 경향과 관심의 혼합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중 어떤 것들은 양립 가능하지만 어떤 것들은 상충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길을 고르고, 그러면서 어떤 것은 거부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면, 특정한 탐구패턴이 나타난다. 한 가지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맞게 된다. 당시에는 그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스타일은 예술을 융합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유무형의 결정체다. 다양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비롯해 드러나지 않는 맥락과 질서를 담아낸 결과이자 가시적 표상체계의 완성이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며 일구진다.

하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엇그제 졸업한 신진 작가들조차 내용과 형식의 특성에 조급해하고, 그런 그들에게 스타일이 없다면서 나무라는 이들을 어렵잖게 만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예는 예술초년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스타일이란 넓고 깊은 경험을 토대로 한 미학적 탐구의 결과이기에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피카소의 드로잉을 보고 예술가로서 자신이

발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다고 피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오히려 처음 예술계에 발을 들인 작가들의 작품은 옛 선배들의 작품과 동시대미술흐름의 복합체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브리짓 라일리의 말처럼 젊은 작가들은 아직 명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것저것 실험적인 과정을 거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게 정상인 셈이다.

이는 모네와 피사로, 드가로부터 색과 붓놀림을 빌려와 독자적인 양식을 만든 마네나, 피렌체 메디치도서관 벽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벽화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시인한 마크 로스코, 1913년 아모리소에서 발견한 야수파와 인상파, 큐비즘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전혀 다른 예술관을 갖게 된 미국 추상화가 스튜어트 데이비스 등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젊은 작가들에게서도 소위 스타일이란 것을 엿볼 수 있다. 일찌감치 자기만의 특성을 선보이는 작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허나 그들에게서 읽히는 스타일이란 대체로 취향의 보편성에 기댄 여운이 있다. 그건 젊어서 알게 되지만 경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과는 결이 다르다.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현대차,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전시회
현대자동차는 7월 2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 전시회 개막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필립 르플록 FIFA 상업 부문 최고책임자,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원회 회장, 파트마 사무라 FIFA 사무총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마르코 파조네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총괄 디렉터, 호베르투 카를로스 FIFA 홍보대사(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NH농협은행 감사부, 깨끗한 농촌마을 가꾸기 동참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감사부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를 방문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고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채운 감사부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감사부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메밀씨 뿌리기, 참깨이식 작업을 함께했다. /NH농협은행

고령 가입자 외면하는 보험업계



기지수첩 이봉준 (파이낸스&마켓부)

최근 보험사들이 카카오페이 등과 손잡고 보험료 납부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미래의 주요 소비층인 2030세대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슈어테크 활성화 등 각종 신기술로 보험사 서비스를 개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물론 보험금 청구 절차도 보다 간편해지는 추세다.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도 기대하고 있다. 그간에는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서 등 각종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야 했지만 모바일 등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로 소비자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다만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 가입자에게는 같은 서비스는 ‘하늘의 별따기’일 뿐이다. 고령 가입자들은 적어도 20~30년 전 상품에 가입하여 전국에 설치된 고객센터를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기술 진보를 통한 모바일 활용보다 직접 고객센터를 찾아 업무를 보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다. 보험사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이들 고령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객방문센터 또는 지점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각 사는 고객방문센터 통폐합 및 점포 축소를 단행해왔다. 지난 한 해에 문을 닫았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오롯이 고령의 보험 가입자, 기존 보험사 서비스보다 편리한 이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 가입자의 불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전체 금융 서비스 중 보험 소비자의 불만율이 높고 금융감독원 보험 소비자 민원율이 쉽게 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계약관리 서비스 및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의 불만사항 해소가 제대로 맡겨지지 않은 탓이다.

보험사들은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서비스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령 가입자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서비스 발전보다 전체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만족을 이루어야 한다. 고령의 보험 가입자들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의 부흥기 노동 현장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이들이 보험계약을 하고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오늘날 보험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고객서비스 실현이 달성된다.

/bj35sea@metroseoul.co.kr



한화생명·손보 임직원 및 자녀, 해양환경 정화활동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지난 9일 강화도 여자리에서 해양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한화생명 임직원 및 자녀 40명이 함께 했다. 봉사단은 인근 갯벌에 버려진 페트병, 페스티로폼, 폐비닐 등을 수거했다. 부모와 자녀가 2인 1조로 약 2시간 동안 해안가 3km 구간에서 20포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참가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서울우유, 배우 윤여정·손호준 홍보대사로 위촉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배우 윤여정과 손호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우유협동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송용현 조합장, 최철수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배우 윤여정(왼쪽부터), 송용현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손호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인사

◆한국스포츠경제 △대표이사 발행인 송진현 △부사장 겸 편집대표 명재곤 △전문이사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67호

편집국장 문주용

부음

▲ 오충근 씨 별세, 오종훈(SK에너지 에너지 전략본부장)·송훈(개인사업) 씨 부친상 = 9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53-620-4647

▲ 정재화(전 경일여고 교감)씨 별세, 최명희(전 대구초등학교 교장)씨 남편상, 정진영(국민일보 종교국장)씨 부친상, 황남경(더힘찬약국약사)씨 시부상, 정치화(현대리마트 디자이니)씨 조부상 = 발인 12일 오전 9시, 대구 한패밀리요양병원 장례식장. 053-760-8800

금감원

금융교육강사 연수자 모집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교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아디다스, 국립현대미술관과 'MMCA 무브X아디다스' 진행
아디다스가 국립현대미술관(MMCA)과 함께 지난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관객 참여형 'MMCA 무브 X 아디다스'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무용수 성장용, 김민진이 사전 응모를 통해 선정된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현대무용과 트레이닝이 접목된 새로운 프로그램 선보였다. /아디다스

동국대-가톨릭대

英 QS세계대학평가 40단계 상승

교육여건 개선 대학 순위 올라

동국대

국내 13위로 역대 최고순위 기록

가톨릭대

국내 15위... 교원 당 학생 수 2위



동국대는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의 2018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3위를 기록했다./동국대



가톨릭대는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5위를 차지했다./가톨릭대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올해 세계대학평가에서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 국내 대학들의 순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순위 432위, 국내 13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2013년 QS세계대학평가에 첫 참여한 이후 매년 순위가 상승했고, 올해는 역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무려 39계단이나 상승했다. 동국대는 특히 교원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에서 각각 24계단, 51계단 올랐다. 연구경쟁력이 높은 교원을 초빙하고, 우수 유학생을 집중 유치한 것이 순위 상승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수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교원들을 지속 초빙해 교수당 학생 수 지표를 개선했다”며 “또 교수 논문 피인용 수를 올리기 위해 교수들에게 여러가지 동기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다. 이어 “영화영상 등 유학생 중점학과 6개를 지정해 유학생들을 집중 유치한 것도 외국인 학생 비율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도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5위에 올랐다. 가톨릭대는 특히 교원당 학생 수에서 국내 2위에 올라 전체 순위를 끌어 올렸다.

가톨릭대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국내 순위는 16위에서 15위로 1계단 상승했고, 세계 순위에서는 지난해 501위에서 올해 456위로 45계단이나 상승했다.

가톨릭대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교원당 학생 수에서 국내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QS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85개국 484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평가 지표로는 ▲학계 평판(40%)이 가장 높고, ▲교원당 학생 수(20%)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20%) ▲졸업생 평판(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 등 6가지 지표가 반영됐다.

올해 QS 세계대학평가 1위는 매사추세츠공대(MIT), 2위는 스탠퍼드대, 3위는 하버드대, 4위 캘리포니아공대가 차지해 1~4위를 미국 대학이 차지했다. 국내 대학 순위만 보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지스트, 이화여대, 한국외대, 중앙대, 동국대, 서강대, 가톨릭대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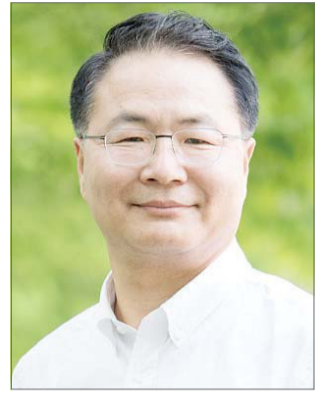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민주 진보 단일후보는 송주명” (경기도 교육감 후보) 진보인사들 잇따라 지지 선언

노혜경 전 노사모회장

정진후 전 국회의원 등

“이재정 후보와 차별성 부각”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 /후보 캠프

지난 4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한신대 교수)에 대한 진보성향 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 불참한 진보 성향 이재정 후보(현 교육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송 후보 캠프에 따르면, 노혜경 전 노사모회장, 박진 촛불집회 사회자, 박래군 416연대공동대표 등 민주진보 인사들이 송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경기 교육감 후보 힘 내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세현 장을 다녀와서 아쉬움이 많아 말을 하고 싶다”며 “송주명 후보가 시민사회가 선택한 민주진보후보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재정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 “4년 전 그를 선택했던 시민사회가 왜 그럴 버렸는지,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자보니 후보로 나선 현 교육감이 지금도 4년 전의 민주진보 후보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후보는 올해 초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관한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라며 “당시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후보 경선에 불참했으나 각종 방송 등에서 진보교육감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는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단일화에는 구희현 친환경학교 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 지부 초대 지부장, 이상대 신안산대 부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로는 이재정(현 교육감), 송주명(한신대 교수), 배종수(서울교대 명예교수) 등 진보성향 후보 3명과 임해규(전 경기연구원장), 김현복(전 도의원) 후보 등 보수성향 후보 2명이 출마했다. /한용수 기자

이기우, 전문대교협회장에 4회째 연임 성공

(인천재능대 총장)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이번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14~15대, 17대에 이어 4번째 회장을 맡게 됐다.

이 총장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위기의 전문대학을 지켜내겠다”며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하는 회장, 힘있는 협의회”를 기치로 내건 이 총장은 이날 정경발표에서 전문대 당면 문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우선 전문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입학금 폐지에 따른 4가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인천재능대학교

후속 합의사항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현행 80학점에서 70학점으로 축소하고, 등록금의 법적 인상을 한도 내의 인상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고등직업교육 영역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등직업교육육성법’을 제정

하고, ‘범정부 차원의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직업교육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 중심의 대입제도 확립, 40세 이상의 고졸 성인학습자의 정원의 입학제도 도입, 수업연한 다양화 실현, 남북관계 개선 시 북쪽 주민의 직업교육과 새 일자리 창출 등을 전문대학이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장은 공약 실천을 위해 협의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 내에 ‘전문대학 상생협력본부’를 설치해 개별대학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1967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차관을 지낸 뒤 2006년부터 인천재능대 총장을 맡고 있다. /한용수 기자



‘2019 대입, 서서히 막으려 정보전쟁’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19 대입예측 입시설명회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관계자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제작자협

아주자동차대학에 실습용 VT車 기증

아주자동차대학(총장직무대행 오태일)은 지난 7일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회장 박상권)로부터 실습용 VT(마이트) 차량 1대를 기증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증받은 차량의 신차가격은 4500여만원이다.

아주자동차대는 기증 받은 차량을 재학생의 특장차 정비와 튜닝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가 지난 7일 아주자동차대학에 실습용 VT(마이트) 차량 1대를 기증했다. 아주자동차대는 차량을 재학생의 특장차 정비와 튜닝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주자동차대학교

교육부, 2018 우수학술도서 285종 선정

전국 대학도서관에 13만권 보급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2018년 우수학술도서 285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외교 문서를 통해 1976년~1979년 당시 한국과 미국, 북한의 관계를 다룬 ‘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등 북한 관련 도서도 포함

돼 눈길을 끈다. 이외에 ‘북한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손혁상 외, 으뜸), ‘중국 일상속 북한 이미지’(박명규 외 편, 진인진), ‘남북한 역사소설 연구’(문홍술, 역락) 등 북한 관련 도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도서 13만권을 구입해 올해 11월까지 전국 대학 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서는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28종이다. /한용수 기자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가족뮤지컬
왕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전설의 몬카트와 함께 달린다!



용의기사

2018. **7.21** (토)~**8.19** (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예매 :  인터파크 티켓

문의 : **1522-2061**

예능 왕국의 6월 키워드는... #힐링 #국방 #여행

하반기를 맞아 케이블 채널 tvN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수미네 반찬', '풀 뜯어먹는 소리', '꽃보다 할배 리턴즈' (가제)로 탄탄한 시청률을 확보할 예정인 것. 각각 프로그램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인지, 또 어떤 재미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질지, 올 여름 TV 보는 재미를 배가시켜줄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세 가지를 소개한다.

◆풀 뜯어먹는 소리

'귀농', '귀촌' 등 바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오늘날, 이를 대리만족시켜줄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 줄을 잇고 있다. tvN '삼시세끼'를 시작으로 '숲 속의 작은 집', KBS 2TV '나를 케는 아저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tvN은 또 다른 자연산 채식 예능 '풀 뜯어먹는 소리'를 내놓았다. 개그맨 정형돈, 김숙, 이진호, 배우 송하윤 등이 도시에서 벗어나 16세 중딩 농부 한태웅과 함께 시골에서 생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4MC는 자신만의 밭에 평소 심고 싶었던 작물을 직접 키우며 힐링하는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힐링',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능이 늘고 있는 가운데 '풀 뜯어먹는 소리'는 어떤 차별화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홀릴지가 관건 포인트. '풀 뜯어먹는 소리'의 연출을 맡은 엄진석PD는 "네 MC들이 태웅이와 함께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계획"이라며



풀 뜯어먹는 소리

16세 농부와 작물 키우며 시골생활 소소한 행복 전달할 '힐링 예능'

"느릿느릿 진짜 시골살이를 보여주는 '삶 큐멘터리'를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보기만해도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힐링 예능으로 시청자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달할 예능 프로그램 '풀 뜯어먹는 소리'는 오는 6월 25일 첫 방송된다.

◆수미네 반찬

'삼시세끼', '윤식당', '현지에서 먹힐까' 등 국방의 인기가 열기를 이어가고



수미네 반찬

연예계 소문난 손맛 김수미 주축 반찬 문화·노하우 전파할 '국방'

있는 가운데 tvN이 '반찬'으로 새로운 국방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연예계 소문난 손맛의 대가 김수미를 주축으로 이뤄지는 '수미네 반찬'은 해외 식문화가 유입됨으로써 잠시 조연으로 물러났던 반찬을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옮겨오는 취지로 시작된 전무후무 '반찬' 전문 요리 프로그램이다. 김수미가 한국 고유의 반찬 문화 이야기와 노하우를 전파할 전령사로 나서고, 김수미 표 반찬 노하우는 대한민국 요리계에 정평이나



꽃보다 할배

'글로벌 예능' 네 번째 시즌 막 올라 독일로 출국한 할배들의 황혼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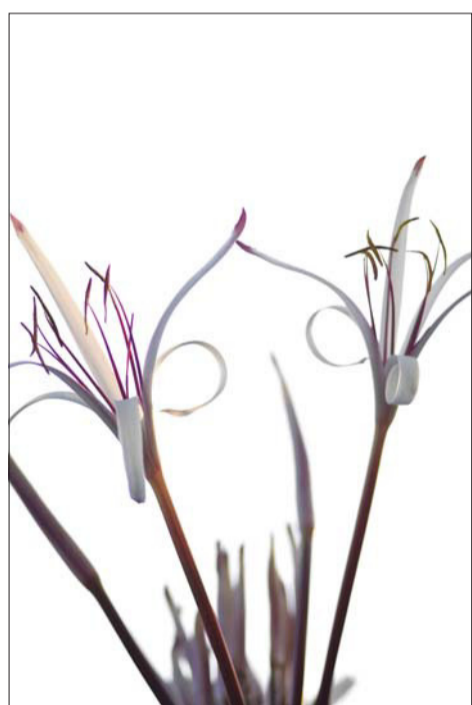
있는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테이너 최현석, 국내 유일 불가리아 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 등이 전수받는다. 기존 국방들이 다룬 메인 요리가 아닌 집밥을 절로 생각나게 한다는 '반찬'을 공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관건 포인트. 이미 지난 6일 베일을 벗은 '수미네 반찬'은 "모든 사람들이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할 것"이라던 김수미의 말처럼 '수미네 반찬'은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표 집밥, 그리고 요리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김수미의 정감가는 화법으로 소개된 고사리 굴비 조림, 연근전 등 반찬이 집밥을 절로 그리워지게 만들고 동시에 웬지 모를 애뜻함과 향수를 자극한 것. 여기에 맛 평가부터 셰프 도우미까지, 특급 조력자로 나선 노사연과 장동민이 깨알 재미를 선사해 프로그램의 감칠맛이 더해졌다. 김수미 표 반찬으로 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미네 반찬'은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된다.

◆꽃보다 할배 리턴즈

'꽃보다 할배' 네 번째 시즌의 막이 올랐다. 국내를 넘어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은 글로벌 예능 '꽃보다 할배' 시리즈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오는 6월 tvN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지난 4일 '꽃보다 할배 리턴즈' (가제)라는 이름으로 독일로 출국한 '꽃보다 할배' 팀은 원년멤버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 짐꾼 이서진에 더해 배우 김용건이 막내로 합류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3년 대만 편을 시작으로 스페인(2014), 그리스(2015) 편을 이어온 '꽃보다 할배' 팀이 이번 독일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풀 조합 케미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할배들 새로운 황혼 여행이 그려지는 '꽃보다 할배 리턴즈'는 '숲 속의 작은 집' 후속으로 오는 29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문주란

곡선의 여유로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꾸는 하늘의 손길처럼

/고흥근 작

스타들의 투표 독려 300만뷰 돌파... 사전투표율도 꺾춤

유재석·강호동·신동엽 등 톱 예능인들 노개런티 출연

스타들이 함께 한 6.13 지방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 '613투표하고웃자'가 3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가운데 사전투표율 역시 2배나 올랐다.

1일 TV 방송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YTN Star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613투표하고웃자' 영상은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전체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넘었다. '613투표하고웃자'는 지난해 고소영, 노희경 작가, 정우성, 한지민(가나다 순) 등 총 30여 명의 배우와 작가, 감독들이 참



여,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큰 화제를 낳은 '0509 장미프로젝트'를 이어받은 최대 투표 프로젝트로,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일상의 삶을 바꾸는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뜻있는 스타들과 기획자 등 다양한 이들이 특정 단체 없이 모여 민간 차원에서 참여했다. 강호동, 김구라, 김국진, 김준현, 김태

호PD, 남희석, 박경림, 박나래, 박수홍, 박휘순, 신동엽, 양세형, 유세윤, 유재석, 이수근, 이휘재, 임하룡, 장도연, 정준하 등(가나다 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능인과 예능PD가 투표 참여의 순수한 뜻을 담아 전원 노개런티 출연으로 진행했다.

19명의 예능인들이 선거에 대한 생각을 전한 '당선됐습니다'와 웃음에 대한 철학 속에 소신을 밝힌 '웃기지마세요' 투표 티셔츠 입는 법이 공개된 패션필름, 응원 메시지가 담긴 응원 영상 등이 공개된 이번 프로젝트는 출연진들이 투표 티셔츠를 입고 투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드러내 의미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1일

음력 : 4월 28일

수도권 날씨

25~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연천 15/25

동두천 15/25

가평 14/23

파주 14/25

서울 17/25

양평 16/25

인천 18/24

수원 16/24

용인 16/24

평택 17/25

백령도 15/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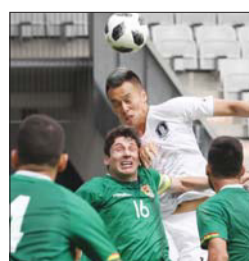
신태용號 마지막 모의고사... 세네갈과 '비공개 평가전'

스웨덴전 나설 베스트 11 기동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인 스웨덴의 마지막 평가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비공개로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일 (한국시간) 밤 10시 30분 오스트리아 그뢰디히 다스골트베르크 슈타디온에서 세네갈과 '비공개 평가전'을 벌인다.

12일 러시아 내 베이스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하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지난 7일 한국 김신우기 볼리비아 평가전에서 로날드 알데스와 불경함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시코, 독일과 F조에서 상대하는 한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평가다. 세네갈과 평가전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 관중은 물론 취재진까지 차단한다. 월드컵 본선에서 일본과 같은 H조에 편성된 세네갈과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F조에서 상대하는 한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신태용 감독은 스웨덴과 같은 4-4-2 전형을 쓰는 세네갈을 상대로 18일 스웨덴과 F조 조별리그 1차전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한다.

특히 지난 7일 볼리비아전에서 0-0으로 비겼던 신태용호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7위인 세네갈을 상대로 스웨덴전에 나설 베스트 11을 가동하는 한편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방법을 찾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신태용 감독이 세네갈과 평가전에서 어떤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테스트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뉴스] 금융권, 콜센터 대체 할 챗봇 서비스 선택 02



Life

[유통] 본격적인 더위에 수분 보충음료 주목



우편·물류·금융 전 영역에 블록체인 접목

“우분, 4차 산업혁명 바람 타고 국민 생활 곁으로 갈 것”

(우정사업본부)

인터뷰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대담=윤휘중 산업부장

“우정사업의 두 축인 우편·물류와 금융 사업 전 영역에 블록체인을 접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편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소통의 통로였던 우체국.

한일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한 해에 만 55억통의 편지가 오갔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체국은 ‘낡고 오래됐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한 풀 기세가 꺾였던 우체국이 지난해 11월 IT전문 정통 관료인 강성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구삼아 국민 삶에 파고들도록 변신을 꾀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집배 노동조건 개선을 어느 정도 해결한 강 본부장이 구상하고 있는 ‘넥스트 스텝’이다.

강 본부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우체국 집무실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내부 조직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와 소통을 하고 경험을 쌓아 가고 있다”며 “조만간 실손 보험 청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물류 전반에 도입할 것”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보통신 관련 부처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주요 정책을 함께 해 온 강 본부장은 블록체인이 ‘월드와이드웹(WWW)’이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의 파급력과 맞먹는다고 본다.

블록체인은 중간 관리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이 실손 보험 청구에 도입되면,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병원비 수납 후 모바일 기기에서 병원 의무기록 연계와 보험금 자동생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좀 더 우체국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포함해 우분은 강 본부장 취임 이후 6개월 간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신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소형 전기차’로 대체하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눈이 정강이까지 쌓이던 날 부여에 내려가 집배원들과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날 옆에 있던 20여년 경력의 집배원장께 ‘오늘 몇 번 넘어졌나요?’라고 물어보니 망설이다가 ‘두 번 넘어졌습니다’라고 하더군요. 20여년의 베테랑도 두 번 넘어질 정도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매일 눈·비를 맞아가며 현장에서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 데 기여할 것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이 최근 서울 광화문우체국 집무실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정사업 전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정사업 주요 혁신 전략

사람 중심 집배 · 물류혁신

- 집배인력 확충
- 전기차 보급
- 자동구분기 보급 확대
- 자율주행차량 개발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

- 빅데이터센터 운영
- 로보어드바이저
- 핀테크
- 블록체인
- 스타트업 지원
- 드론배송

지역사회 공헌 강화

- 혁신기업 투자 4,760억원
- 인자리 투자 펀드 조성 1,500억원
- 틴틴우체국
- 365 우체국 봉사단
- 공익사업
- ‘작은 대학 우체국’

자료/우정사업본부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우정사업본부 안동우체국장과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재난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 제32대 경북 지방우정청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우정사업본부장을 맡았다.



실손 보험 청구 시작으로 사업 전반 블록체인 접목해 과정 줄이고 편리성 강화

소형전기차·드론 등 도입해 배송업무·노동시간 단축 목표

일을 하는 집배원에게는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과거 자전거를 대체했던 오토바이는 기동성은 좋지만, 적재량이 적어 소포택배를 실는 데는 힘이 부친다. 무엇보다 집배원들이 오토바이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 문제라고 강 본부장은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 1000대의 소형 전기차를 도입하고, 오는 2020년까지 1만5000대의 오토바이 중 1만대를 소형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집배원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 우체국에는 별도의 전기차 충전시설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우

정사업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드론 배송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좌표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륙에서 비행, 배송, 귀환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2시간 이상 소요되던 배송업무를 20분 이내로 단축시켜 도서·산간 지역에 유용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 선착장에서 8kg 무게의 우편물을 실은 드론이 4km 바다 위로 날아가 득량도 마을회관에 우편물 배송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달에는 산간지역 현장 검증을 위해 강원도에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연간 38억건의 우편물류 정보와 일평균 2400만건의 금융거래 정보가 쏟아지는 우정사업 정보도 빅데이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다음날 배달 받을 편지를 전달 미리 안내해주는 배달안내 서비스를 하지고 제안했습니다. 배달되는 우편물에는 데이터 파일이 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까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강 본부장의 집무실 한편에는 1884년에 설립된 조선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관인 옛 우정총국 사진이 걸려있다. 근대적 통신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치된 우정총국은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등 근대화의 불쏘시개가 된 곳이기도 하다.

그가 우분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체국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강 본부장이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 단축을 목표로 내걸고,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스마트우편함 등으로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 것도 ‘행복사회’를 위한 일환이다.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국민 생활과 함께 했던 우체국이 지금은 국민과 유리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우체국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다시 국민 생활 곁에 있는 우체국으로 거듭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리=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포기없는 혁신기업의 꿈,

KB와 손잡고 날아오르다

수많은 젊은 도전이 불가능에 그치지 않도록
열정 가득한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의 꿈, KB와 함께 이루다] Dreaming Idea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창업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향후 5년간 혁신기업 지원 전용펀드를 1,500억원 조성하고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SOHO창업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혁신기업과 소상공인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